



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485호] 2018년 8월 15일

02 귀농 4인 4색
김계수·김태욱·유재흠·조대성 동문

03 서울대 학술림을 아시나요
지리산 자락 남부학술림 문화 개방

4~5 기획 인터뷰
자연인 박상철과 생태학자 김산하

10 장학기금 마련 미술전시회
남북한 대가 작품 한 자리에

26 정상욱 미 렇거스대 석좌교수
한국에 국제 학술교류센터 짓자

여기는 네팔...방학 쪼개 봉사나선 재학생들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선발한 ‘2018 하계 SNU 공헌유랑단’ 소속 재학생들이 지난 8월 초 네팔의 너무나(Namuna) 학교를 찾아 음악, 미술, 과학 교육 등을 펼치며 현지 학생들과 우애를 나누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모교는 3년 전 대지진을 겪은 네팔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등 7개국 7개 도시에 총 192명의 재학생 봉사단을 파견했다. 사진=글로벌사회공헌단 >>관계기사 14, 15면

서울대 지난해 기술이전 72건, 수익 42억

2017년 국내특허 615건, 해외 149건
기술이전 실적은 연구 역량 잦대

지난해 모교가 기술이전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4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전통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에서도 모교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가 공개한 2017년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현황에 따르면 모교는 72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약 41억7,166만원의 수입료를 올렸다. 고려대(107건·약 37억원), 성균관대(156건·약 36억원), 연세대(86건·약 30억원), 한

양대(47건·약 29억원)가 뒤를 이었다.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연구를 통해 개발한 특허기술, 노하우, 실용신안, 물질 등을 기업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다. 이전 건수보다는 보유한 기술의 가치 등이 수입료를 결정한다고 평가하며, 등록된 특허 중에서도 실용화가 가능한 건수가 많을 경우 기술이전 수입료가 높게 나온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가 공개한 2017년도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모교는 국내특허 615건, 해외특허 149건 등 총 764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국내대학 중 가장 많은 878건의 특허를 등록한 카이스트는 지난해 약 26억8,000만원(45건)의 기술이전 수익을 냈다. 대학의 산학협력력이 강조되면서 기술이전 현황은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추세다. 기술이전 실적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실적 등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의미도 크다. 모교는 전 대학이 공통으로 겪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상황과 더불어 국고 지원금 축소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수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기술이전으로 번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더 많은 기술수입료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모교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의 창의적인 지적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 및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지난 2013년 약 24억5,900만원의 기술이전 수익을 올린 이후 2015년에는 약 41억2,600만원(138건), 2016년에는 48억1,900만원(127건)의 수익을 올렸다. 이공계는 특히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공과대학은 지난해 개정한 학부 교수 업적 평가 기준에 기술이전 항목을 포함시켰다. 최근 강현구(건축94-98) 건축학과 교수가 스마트 포스트 텐션 공법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미국 최고 기업에 기술이전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모교의 특허기술과 노하우 기술이전이 활발한 편”이라며 “다수의 기업과 기술이전이 활성화돼 있어 수익 면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문님들께

더 나은 총동창회의 미래



신수정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기약59-63

전례 없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전임 서정화 명예회장님으로부터 동창회기를 물려받은 지 어느새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쌓아놓으신 총동창회의 값진 자산들을 확인해 보면서 후배로서 누리기만 해 왔던 시간들이 죄송스러웠고, 그에 비례해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 도 안 되는 일이지요, 동문 여러분의 자문과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누가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인이려면 누구나 기억하는, 잊지 못할 말

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교 서울대학교는 학문을 닦는 대학으로서만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만들어 내고, 지켜나가는 역사의 파수꾼이자 리더 그룹입니다. 따라서 서울대총동창회는 동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조국과 세계,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젊은 세대를 위하여 새 길을 닦고 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취임 후 ‘상임부회장단’을 구성하고 ‘서울대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칙과 제도의 보완, 50주년 행사의 기획, 재단법인 관악회를 통한 장학사업의 확대를 모색하는 등 더 나은 동창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모교와 동문, 선배와 후배를 잇는 가교가 되어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든 동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은 우리 총동창회가 설립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의 성과와 보람을 토대로 다가

올 반세기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은 회장단뿐 아니라 모든 회원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최근 발생한 총동창회 소송 건은 유감스러운 일로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사실관계를 소상히 회원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총동창회가 동문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섬기고 포용하며 모교 사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려 합니다.
총동창회가 접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이제 막 결음을 시작한 저에게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무거운 소임을 더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촉진제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고 햇빛은 더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새로운 원년으로 하여 서울대총동창회가 전임 회장 선배님들께서 닦아놓으신 기반 위에서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후배 동문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안재석 동문 500만원
장영준 동문 200만원 기부

안재석(경영87-95) AK홀딩스 대표가 지난 7월 26일 본회에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안 동문은 AK홀딩스 전무와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본지의 연락을 받고 “재학시절 지도교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학비 감면을 받고 다닌 적이 있다”며 “받은 만큼은 못하더라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기부 계기를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장영준(경영81-85) 동문이 200만원을 기부했다.
본회는 장학금 출연자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모든 기부자는 역사연구기록관에 명패를 기재하며, 5,000만원 이상 기부 시에는 장학금에 명칭을 부여하고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장학금 예우 프로그램 안내 9면

장학금 기부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www.snua.or.kr
계좌번호(예금주:재단법인 관악회)
신한 140-006-909438 국민 827-01-0248-017
농협 069-01-272391 우리 1005-202-771270
※ 무통장 입금시 성명, 입학년도 기재바랍니다.

별지부록 : 장학금기부 참여 신청서

귀농은 도피가 아니다, 도전이다

서울대인 귀농 4인 4색

휴가철을 맞아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녹음이 우거진 산이든 하안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든 피서지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냥 여기서 살까. 그러나 휴식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자연과 생활의 터전으로 눌러앉은 자연은 엄연히 다들 터. 이에 본지는 4명의 서울대인으로 부터 귀농생활의 속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의 귀농시기와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80년대 학번으로 젊은 나이에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선 비슷했다.

김계수 동문, 닭 키우는 전직교사

김계수(사회81-85) 동문은 본인의 이름에 착안해 달나라의 계수나무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뜻을 담아 ‘달나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친구인 아내 선현숙씨와 함께 전남 순천에서 농사지으며 산 지 18년째 됐다. 모교 졸업 후 그는 15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지식이 아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가 들었죠. 교실은 그렇게 저를 내모는 반면 고향은 저를 손짓해 부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만족감이 도시에서의 피폐했던 생활에 대한 일시적인 반작용일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요.”

2000년 10월 김 동문의 귀농에 이어 2001년 2월 그의 가족들도 고향으로 내려왔다. 현재는 논밭을 합쳐 약 5,000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고 닭을 1,000마리 정도 기르고 있다. 귀농을 준비하던 때 경기도 화성의 야마기시마을에서 처음 양계를 접했다. 마침 순천 인근엔 유정란을 생산하는 곳이 별로 없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았다. 살충제계란 파동이 전국을 휩쓸던 지난해 여름에도 김 동문의 양계장은 끄떡없었다.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를 전혀 쓰지 않고, 직접 기른 감자·무청 등을 먹이니 정부 기준의 친환경 품질을 훌쩍 넘어선다.

많을 땐 300가구가 넘는 집에 달걀을 배달했지만 지금은 200가구로 줄었다. 고객이 떠난 게 아니라 김 동문이 억지로 배달을 줄였다. 모름지기 농사꾼이란 땅을 갈아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을 생



1. 김계수 동문(왼쪽)과 부인 선현숙씨가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2. 유재흠 동문(오른쪽)과 부인 임덕규 동문은 재학시절부터 농민운동의 뜻이 같았다. 3. 귀농민 출신 변호사 김태욱 동문은 농어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각이었습니다. 발품을 팔아 집집마다 배달을 다녔죠. 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엔 무조건 믿는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규격화된 틀과 기준에 따라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 증마크 없이도 20년 가까이 저를 믿어주는 소비자들,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김계수 동문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순천광장신문’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창간호부터 연재해온 고정칼럼을 묶어 ‘나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란 책도 펴냈다.

유재흠·임덕규 동문부부, 28년 농사외길

유재흠(고고미술사86-91)·임덕규(영문86-90) 동문 부부는 전북 부안에서 올레로 28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모교 재학시절 열혈운동권이었던 유 동문은 당시 학생회 농민분과장을 맡고 있던 임 동문을 처음 알게 됐다. 일찍부터 농업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 임 동문은 유 동문에게 존경스럽고 함께 하고 싶은 동지였다.

“86년 건국대사건, 87년 6월 혁명 등을 겪으면서 휴학을 하고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움직이는 농사일을 경험했어요. 농민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모교로 돌아왔죠. 함께 농사지를 사람을 찾던 중 당시 인문대 농활준비대장을 맡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학 후 유 동문은 인문대학생회장이 됐고 평양축전준비 같은 통일사업을 하다가

8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90년 출소한 유 동문은 옥바라지를 해줬던 임 동문이 부안으로 농민운동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1991년 임 동문을 따라 부안으로 내려왔다.

“우리 부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농사입니다. 설혹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농사는 계속 짓기로 약속했죠. 저희는 주로 벼농사를 짓는데 대략 4만~5만평 정도 됩니다. 보리나 밀 같은 이모작 작물도 5,000~1만평 정도 꾸준히 짓고 있어요.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재흠 동문은 귀농 10년 만인 2000년대 초반 친환경농경지를 만들었다. 협동경제시스템의 가능성을 보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 벌인 일이었다.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적용해본 것인데, 결과가 만족스러워 해가 갈수록 함께하는 농가가 늘어났다. 작목반원은 한때 100여명에 이르렀고 농지면적도 340ha까지 확장됐다. 승승장구하던 중 2008년 대형사고가 터졌다. 작목반이 유통시킨 친환경 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 귀농 후 막대한 최악의 시련이었다.

“금전적 손해도 컸지만 정말 저를 괴롭힌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믿었던 이웃이 몰래 농약을 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한동안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데에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의 밑바탕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을 위해 열심히 살기로요. 그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새롭게 마음먹은 유 동문은 작목반부터 정리했다. 유사사고 발생시 친환경 인증을 박탈하고 나머지 농가의 손실을 전량 보상키로 하는 등 책임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작목반원이 23명으로 줄었고 경작면적도 50ha로 쪼그라들었다. 아이쿱생협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유 동문을 비롯한 작목반의 사정을 듣고 출하한 쌀과 밀 전량을 수매하기로 한 것. 유 동문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생협과 매해 계약재배를 이어오면서 현재는 연 6,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김태욱 동문, 귀농민 출신 변호사

김태욱(원자핵공학81-88) 동문은 모교 졸업 후 IT회사에 취직해 2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1989년 말 제주에 귀농했다. 이북에 고향을 두고 월남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해방 후 제주에 정착했고, 그때부터 약 1만평 규모의 굴 과수원과 약 2,0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해왔다. 가업을 이어받아도 아쉽지 않을 만큼 형편이 괜찮았지만 이웃들은 김 동문을 이상하게 봤다. ‘서울에서 무슨 큰 사고를 쳐서 내려온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다.

“제 나름대로 신중하게 귀농을 결정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이웃들로 하여금 저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겨우 농사일을 하다니 뭔



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속내였을 테죠. 그저 묵묵히 제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 파고 돼지 치는 일에 전념했던 김 동문은 귀농 6년 만인 1995년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농축산민으로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여러 번 겪으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다른 이웃들을 돕기로 결심한 것. 김 동문 자신이 억울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대량으로 돈분을 발효해 퇴비로 만들기 위해 굴삭기가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시청 축산과에 드나들며 대형 비닐하우스 건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했었죠. 농장에 비닐하우스는 특별한 허가절차가 필요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어놓은 지 몇 달 후 산림과에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곳이 비록 농장부지긴 하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전용허가를 받고 지어야 한다. 허가를 안 받고 지었으니 철거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이라도 산림전용허가를 받겠다. 불법으로 지으려 한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 문의했을 땐 특별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항변해도 무조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용역을 대동한 공무원들이 와서 비닐하우스를 강제 철거당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김 동문은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시합격 후 김 동문은 농축산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경태 기자

인터뷰 조대성 (작곡96-03) 농부

“쌈 채소 농사 9년차…주민과 친해지는 게 먼저지요”

40대 초반의 조대성(작곡96-03) 동문은 젊은 나이만큼 ‘튀는’ 귀농민이다. 지난 2010년 충남 홍성으로 내려가 올레로 9년째 쌈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귀농 성공의 제1요건으로 기존 주민들과의 연대를 꼽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끼와 재능을 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2011년부터 7년 동안 빼꾸기합창단을 결성,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며 2013년부터 3년 동안 ‘조대성의 farm브파탈’이란 팟캐스트를 통해 농촌의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2017년 10월엔 시골생활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시골영감’이란 음반 앨범을 만들어 발매하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염이다. 농사는 관찮나.

“농부가 하늘을 탓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참으면서 일하고 있다.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그리고 오후 늦게 두어 시간 동안 일하고 한낮엔 다른 불일을 보거나 쉬고 있다.”

-재배한 작물은 잘 팔리는지.

“귀농초기 조직했던 ‘젊은협업농장’에서 독립해 지난해부터 개인 농사를 짓고 있다. 비닐하우스 2개동, 400평 규모로 아욱·상추 같은 엽채류를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동네식당 한 군데와 직거래를 하고, 대부분의 작물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 납품한다. 영농 초창기 땀 지인들이 팔아줬다.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친분 때문에

사주지만 세 번째부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생산뿐 아니라 유통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는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생협과 계약을 맺고 재배, 유통하기 때문에 연중 일정한 값을 받고 팔 수 있다.

-귀농 전엔 무슨 일을 했다.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에서 프로덕션 팀 소속으로 6년간 일했다. 퇴사 전엔 팀장으로 진급도 했다. 돌아켜보니 한창 잘 나갈 때 그만둔 것 같다.”

-귀농의 계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다. 음식산업과 경제 정의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먹거리와 환

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동네 생협을 이용하게 됐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자전거 출퇴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사는 한 이러한 노력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귀농을 결심했다. 생각해보면 무모했고 그런 만큼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다.”



-귀농을 생각 중인 분들에게 조언하자면.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편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농사로 돈을 벌어야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것은 창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과 체력, 가족의 후원, 귀농지 선정과 주택 마련, 작목 선택과 유통처 확보 등 도시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몰아쳐 온다. 국내 농수산 환경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전이 아니라 도피라면 말리고 싶다.”

지리산·태화산·백운산...서울대 학술림서 즐기는 피서



서울대는 경기도 광주와 전라남도 지리산·백운산 일대에 학술림을 관리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의 학술 연구가 주 목적이지만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숲체험 활동도 권장하고 있다. 사진 1. 지리산 산자락에 위치한 남부학술림 인근의 계곡 모습 2. 버섯 재배 실험장 3. 지역 청소년들의 통나무 집 만들기 체험 교실 4. 학술림 실습 교육 중인 모교 재학생들의 모습. 사진=학술림 제공



1박 6만원, 원시림 체험 기회

모교 학술림이 2016년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 최근 객실 리모델링까지 마치며 숲 체험 활동을 장려하고 나섰다. 학생 및 연구원들의 실습, 교육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누구나 와서 쉬 수 있다. 모교가 관리하는 학술림은 경기도 광주 태화산학술림, 전라남도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경기도 수원 철보산 학술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태화산학술림, 남부학술림(추산·연곡·직전)은 휴양림 못지않은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숙박 시설까지 갖춰 하루 이틀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손색없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태화산학술림은 수도권 거주 동문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특히 차로 5분 거리에 화답숲이 있어 원시의 자연과 인공 자연을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추석 전후에 가면 산책로를 따라 밤 줄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남 광양 등지에 위치한 남부학술림은 전라도, 경상도 일대 거주하는 동문들

이 이용하기 좋다. 남부학술림 연곡관리소는 빼어난 경치로 소문난 지리산 피아골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봄철 하동으로 이어지는 벚꽃길과 피아골 가을 단풍은 절경이다.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은 숲 체험에 최적화 됐다. 최근 산림교육연구센터를 완공했다. 숙소도 18개실을 갖춰 가장 많다. 별 관측, 곤충채집, 산림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좋다. 다만 추산시험장은 식당을 공동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들 학술림의 1박 이용료는 국립휴양림보다 저렴한 6만~8만원 수준(4인 기준). 국립휴양림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한 반면 서울대 학술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예약이 수월한 편이다. 예약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과 PC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임상준(농공85-89 모교 산림과학부 교수) 학술림장은 “동문들의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학술림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에 있는 만큼 학생들을 우선으

로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달라”고 했다. 방문 팁으로 “남부학술림은 봄과 가을 주말에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 시즌

을 피하거나 주중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김남주 기자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예약

태화산학술림과 남부학술림 이용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이 필수다. 예약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휴대폰과 PC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① 서울대 학술림으로 검색 또는 주소(uf.snu.ac.kr) 입력을 통해 들어간다.
② 첫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예약창이 보인다.
③ 태화산, 남부(연곡, 추산, 직전) 학술림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 후 날짜와 객실을 클릭..
④ 내 예약에 추가한 후 예약신청을 클릭.
⑤ 이름, 전화번호 등 예약자 정보를 입력. 이용목적엔 숲체험 활동을 선택한다.
⑥ 마지막으로 예약접수 및 결제를 진행한다.
진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문자로 예약 완료 메시지가 도착한다. 예약은 이용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문의 : 02-880-4526



태화산학술림 숙소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숙소



학술림 안내

	객실	수용인원	요금(4인기준)	기타
태화산	5개	4~7명	8만8천원	60명 강의실
추산	18개	3~12명	6만6천원	대중소강의실, 세미나실 등
연곡	5개	5~8명	6만6천원	
직전	2개	4명, 19명	6만6천원	

인터뷰

“객실 리모델링 뒤 동문들 이용 크게 늘었습니다”



임상준 학술림장
농공85-89
모교 산림과학부 교수

서울대 학술림은 모교 법인화 이후 소유권 문제로 지난한 과정에 있다. 광양시 시민단체 등 학술림 인접 지역민들이 법인 서울대의 소유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과거 국립대학 시절에는 서울대가 관리할 수 있었지만 국가 기관도 아닌 법인 단체가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법인화가 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교육·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서울대 소유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대는 기재부에서 산림의 교육·연구 목적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임상준(농공85-89) 학술림장은 서울대

가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공공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 객실 리모델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신설 등이 그 일환이다. 이런 노력으로 학술림을 방문하는 수가 지난해 8,000여 명으로 과거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7월 20일 임 교수를 만났다. **-학술림이 동문을 포함한 일반인이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의외였다.** “학생들의 실습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방하고 있다. 태화산학술림의 객실 리모델링도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태화산, 남부 학술림 모두 동문들의 방문을 환영한다.” **-현재 서울대 학술림의 관리 주체는.** “국유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관리 주체는 교육부다. 현재 서울대는 관리 위탁과 무상사용허사를 받아 학술림을 활

용하고 있다. 법인화 되는 시기에 학술림 소유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울대에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과 연구 목적에 대한 해석에서 정부와 서울대간의 차이가 있다. 국가 재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협소하게 해석해 극히 일부만을 서울대 재산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육·연구를 위해 중점활용지에 해당하는 산림만이라도 양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외에는 기존처럼 국가소유로 둔 채 관리권한을 얻어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계속 설득해야 한다.”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이 있는데 서울대가 산을 관리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학술림 제도는 일본에서 시작됐다. 제국대학시절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산을 운영하며 재원을 마련하라고 준 게 학술림 탄생 배경이다. 미국으로 보면 주립 대학에 땅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전 수원농림전문학교가 연구림을 개설했고 그것이 서울대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술 연구 성격이 강해졌다.” **-학술림에 상주하는 직원들의 역할은.** “과거에는 나무를 심고 전국으로 수종을 확산시키는 일 등이 주요 업무였지만 지금은 조사 연구와 대외 서비스 업무가 중요해졌다. 남부학술림의 백운산과 지리산 사이에 880개 사이트가 있는데 5년 주기로 나무와 풀 등 서식하는 식물 등을 조사 연구한다. 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숲체험 활동, 통나무집 짓기, 곤충 채집 등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학술림은 영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대만국립대학은 학술림에 호텔, 식당 사업을 한다. 입장료도 받아 대학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학술림이 우리 소유가 되면 약초도 재배할 수 있고 나무도 팔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학술림 내방객은 몇 명 정도인가.** “남부학술림은 5,000명, 태화산 학술림은 3,000명 정도 된다. 객실 등 시설 리모델

링 후 두 배로 늘었다.” **-과제와 애로점은.** “학술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결정돼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계획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술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작업을 펼쳐가려 한다.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 일환이다. 애로점이라면 현재 학술림 소유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수익을 바라는 시선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태화산, 남부학술림 관리 예산이 연 2억원 정도다. 최소 경비만 지출할 수밖에 없다. 또 관악캠퍼스 조정 관리를 본부학술림이 하는데 예산이 3억원 정도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보다 캠퍼스는 넓지만 조정 관리 예산은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다. 건물이 늘수록 나무 등 조경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구성원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캠퍼스 구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김남주 기자

자연과 벗하며 사는 92세 박상설(기계공학48졸) 동문과 생태학적 삶을 지향하는 43세 김산하(동물자원과학95-99) 동문을 통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저는 제가 아름답습니다. 죽으면 해부학 교실로 갑니다”

92세 박상설 캠프나비 호스트

박상설(기계공학48졸) 캠프나비 호스트는 캠핑 전도사다. 러시아의 다차 제도를 도입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주말이면 자연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는다. 올해로 92세인 그가 이에 대한 증거다. 60대에 가족에서 독립 후 30년을 홀로 지내며 주말 캠핑을 즐긴다. 강원도 홍천 주말 농장에 20만 그루의 나무도 심었다. 90년을 살아온 지혜를 담아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토네이도 출간)’란 책도 출간했다. 강연과 인터뷰, 아시아엔 칼럼니스트 활동 등을 통해 열정적으로 자연의 삶을 전파하는 그를 지난 7월 27일 경기 양주 임대아파트에서 만났다. 그의 집은 홀로 사는 노인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고 깔끔했다. 몸에선 탄탄한 기운이 넘친다. 박 동문은 PC로 화상영어 학습 중이었다.

-영어를 지금도 공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영어학습이 가능한지 실험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3개월 돼가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요.(웃음)”

-홀로 사시는 데 불편함은요.
“전혀요. 김치도 담가 먹습니다. 식해도 만들었는데 맛 보시겠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는 데만 6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이른 새벽에 저 앞산까지 늘 산책을 합니다. 책 읽고 영어 공부하면 하루가 짧아요. 가끔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 준비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걱정을 할 것 같은데요.
“가족 모두가 동의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서로 잘 살고 있을 거란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고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1남 2녀를 뒀는데 어렸을 때부터 개별화 훈련이 돼 있어요. 놀이동산 대신 산과 들로 캠핑을 다녔지요. 유행이 아닌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결혼식도 케이크 하나 두고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땅에 묻히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박 동문은 삶의 고통 대부분이 가족 등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오지 않냐고 되물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늙어서 가족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효도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한 걸음도 내딛을 힘이 없다고 느끼면 곡기를 끊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인도의 바나라시 갠지스 강가의 풍경이 잊히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무리와 살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데 엉켜 있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박 동문은 “마지막 스승은 나를 산에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출할 때면 늘 시신기증서를 목걸이 지갑에 넣고 나선다. 연세대 의대에 해부실습용으로 기증한다는 서약서와 최초 발견한 사람에 대한 수고비까지 들어있다. 병원 측에 실습 후 화장해 산에 뿌려주고 뿌린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유서도 남겨뒀다. 유산으로 고무신 한 켤레와 덕유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남기기로 했다.

-죽음이 두려워 나이든 아니죠.
“글쎄요. 90세 살았으면 천수는 누런 거 같아요. 죽음이 두려울 나이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염을 다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지요. 염을 배우기 위해서 천주교 장례 준비하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시체 18구를 만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발이 뻗뻗해서 단단히 묶어주지 않으면 관 속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의 절차까지 알았을 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지요.”

-몇몇 인터뷰 기사에서 보니 한 겨울에 비바도 하신다고요?

“80대 중반까지는 가끔 했는데, 지금은 강원도 홍천 주말농장에서 캠핑만 즐겨요. 추운 날씨를 견디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져서 오토캠핑도 못한 지 꽤 됐고요. 흑서기라는 지금도 해발 600미



자연적인 삶 실천하는 오토캠핑 선구자
20만 그루 나무심고 스스로 끼니 해결

터 고지에 있는 홍천 주말농장은 선선했다. 산새 소리 들으러 시시때때로 갑니다.”

-캠핑을 즐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타고난 심성이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공병 중대장 생활할 때도 냇가에 오두막을 지어 가족들과 지내기도 했지요. 젊은 시절 제 아이들 외에 동생들까지 11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삶이 고달팠지요.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57세에 찾아온 뇌경색도 자연과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됐지요. 걸으면서 많이 호전됐어요. 요즘도 어지러운 증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캠프나비 호스트라는 직함이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분들의 모임이고 거기서 주인공 노릇을 합니다. 캠프나비의 나비는 자연(nature)과 존재(being)의 합성어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50여 명 정도가 소통하고 부정기적으로 홍천 주말농장에 모입니다.”

-강연에서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변적인 지식은 갖다 버리고 몸으로 움직여라.’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거나 쉬는데 있지 않아요.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괴로운 일이라 생각하는 노동을 가장 인간적인 행동으로 여길 때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요. 고요한 산에서 텐트치고 홀로 지내본 사람만이, 땅을 일구고 식물을 키운 사람만이 깨닫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따라 살지 말자. 뿌리가 단단한 잡초는 밟힐지언정 죽지는 않는다. 스스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한다. 그래야 여유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세상을 대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내용을 체험담과 곁들여 이야기 합니다.”

박 동문은 “심플라이프, 향상성, 엔트로피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산다”고 덧붙였다. “심플라이프는 필요 없는 것은 갖고 살지 말자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삶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 달 약 100만원의 생활비가 듭니다. 임대료, 관리비, 교통비, 식비, 대외활동비 등등 해서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절반, 강연료 등으

로 절반을 마련합니다. 신발도 중고 사서 신고, 과일도 저녁 무렵 떨어 제품 사서 먹습니다. 돈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데만 쓰고 사람도 최소로 만납니다. 두 번째 향상성은 생태계를 존중하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생물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산천어 축제 같은 거 생태계에 역행하는 행사예요. 결국 사람도 물고기도 극한 스트레스로 집어넣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자연은 역행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간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자’입니다. 인간만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 역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역행하고 살 것인가가 문화의 수준이 되겠지요.”

-머리를 뽀뽀 밀어수도승 느낌이 납니다.
“심플라이프를 밖으로 보여주는 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이 거추장스러워요. 늘 이고 다니는 짐 같기도 하고요. 스님들이 미는 이유가 그것 같아요. 과감하게 밀었지요. 매일 깎지 않으면 면도가 어려워져서 늘 관리를 합니다. 이스타일 덕분에 깎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동문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문화살롱이라고 해야 할까. 삶의 품격을 높이는 활동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총동창신문에서 관을 깔아주시면 좋겠네요.” 김남주기자

박 동문은

오지탐험가이자 심리치료사이며 우리나라 오토캠핑 선구자이다. 1928년 춘천에서 태어나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966년 국가기술고시 건설기계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1987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육군 공병대 대위, 건설교통부 거쳐 건설업체에서 임원으로 퇴임했다. 현재 강원도 홍천 오대산 북쪽에 위치한 주말 레저농원 캠프나비(CAMP NABE)에서 열린 인성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엔(kor.theasian.asia)’에 자연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50년 동안 주말농장을 운영해왔고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모든 끼니는 스스로 해결하는 등 몸으로 직접 땀 흘려 캐낸 지혜에 관심이 있다. 주말 영농, 오토캠핑, 여행, 등산, 여가 문화 설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즐긴다.



서울대학교 전용 상담 전화번호
1577-1520

**상위 1%로의
서울대 동문님 및 자녀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선착순 100분께 1회 미팅 기회 제공

당신에게 특별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나의 소중한 인연은 어디있을까요?
노블레스를 가장 잘 아는 메리미와 상의하세요!
노블레스, 전문직, 정재계, 명문가 결혼
아무나하고 하지 않습니다.
메리미는 여러분의 품격과 수준에 맞는
성혼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산천어·나비·고래…동물 학대하는 동물축제는 이제 그만”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김산하(동물자원과학95-99)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의 활동 범위는 생태학과 환경운동을 아우른다. 그는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 학자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유인원의 일종인 긴팔원숭이를 연구해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태의 보고에서 돌아온 후엔 한국 곳곳의 반생태적인 요소들로 눈을 돌렸다. 최근 동물에게 고통만 주는 동물축제를 반대하는 ‘동물축제 반대축제(이하 동축반축)’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동축반축’ 이전에 설악산의 산양 서식지를 해치는 케이블가 설치에 대해 산양 20여 마리를 원고로 내세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됐다. 침팬지 연구의 대가면서 환경운동가로 헌신하는 제인 구달을 연상시키는 행보다. 7월 25일 이화여대에 있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김 동문을 만났다.

-‘동축반축’의 성과를 꼽는다면.

“동물을 잡거나 먹거나 괴롭히지 않아도 재밌는 동물 축제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 주셔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동축반축’에 앞서 토론회를 열고 나비축제나 산천어 축제, 고래축제 등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함께 보여준 셈이에요.”

-동물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매년 전국에서 80여 개의 동물 축제가 열리고 그 중 80%가 축제의 주인공인 동물을 잡거나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산천어는 원래 화천천에 사는 종이 아니에요. 양식장에서 수십만 마리를 들여와서 열흘 남짓의 축제 기간에 모두 죽게 되죠. 나비 축제에선 인공 부화한 나비들을 풀고 축제가 끝나면 전부 폐기해요. 동물의 이름을 내걸고 열리지만 정작 동물들에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일 뿐인 겁니다.”

-같은 날 울산에선 고래 축제가 열렸죠.

“포경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고래 고기를 먹는 위주로 운영되고 있죠. 맞불을 놓는 의미에서 같은 날 열었어요.”

-동물축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동물에 관한 지식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콘텐츠가 돼야 합니다. 고래의 경우 누구나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하는 동물이



‘제인 구달’처럼 환경운동 나선

한국 최초 야생 영장류 학자

예요. 이름을 부르듯이 서로 특별한 소리를 내서 부르기도 하고 행동생태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이 많거든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선조들이 그린 고래 그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어가는 고래들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도 있죠. 나비 축제라면 나비가 실제로 사는 서식지에서 멀리서 나비를 관찰하는 기술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동물축제를 여는 지자체는 반응이 있나요.

“아직 큰 반응은 없지만 주문진 오징어 축제가 저희 제안에 관심을 보여서 의견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일단 맨손잡기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디어를 내려 해요.”

김 동문의 이같은 활동은 야생을 직접 겪어보고 연구한 경험이 근간이다. 2007년 자바긴팔원숭이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구봉할라문 국립공원의 열대 우림으로 떠났다. 매일 밀림을 헤치며 나무 위 긴팔원숭이와 함께 달리느라 팔과 피부통증이 된 끝에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 논문이 탄생할 수 있었다.

-영장류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석사 때까지 최재천(동물73-77) 당시 생명과학부 교수님 밑에서 까치를 연구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교수님께서 ‘좀더 화려한 종이 어울리겠다’면서 영장류 연구를 권하셨어요. 일본 교토대 영장류연구소로 보내주셔서 인턴으로 침팬지 연구를 했는데, 연구실보다는 야생에 있는 영장류를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허락을 받고 다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입학했죠.”

-서울대는 물론 한국에 계보가 없던 연구였죠.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엔 교수님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 인류학과 박순영(인류85-89) 교수님 수업 등을 들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죠. 토종 연구자라서 전 좋았어요. 영장류 연구체계가 잘 갖춰진 해외 대학이라면 몸만 가도 됐겠지만 한국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서울대, 더 나아가 한국의 시도로 바라보고 ‘한국이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공감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국내 영장류 연구 토양이 생겼죠.

“최재천 교수님과 제가 이화여대에 몸

담고 있어서 이곳 학생들이 영장류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벌써 11년째 후배들이 밀림에 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긴팔원숭이들의 안부를 전해주기도 해요. 시집 장가 가서 밀림을 떠난 녀석도 있더라고요.”

김 동문은 남들이 다 하는 분야보다 안하는 쪽, 독특한 쪽을 선택하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강연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많이 만나본 그는 “젊은이들의 꿈나무에 도끼질을 하는 어른은 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왜 영장류를 연구해야 할까요.

“‘인간이라는 생물이 속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니까’라고 답할 수 있지만 다소 인간 중심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그보다는 영장류의 독특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영장류는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개미핥기의 몸은 개미를 먹는 일, 고래는 물 속에서 사는 것에 특화됐는데 영장류는 그렇지 않죠. 머리로 세상을 풀어나가는 동물이고 그만큼 여지가 많아요. 연구 가치가 크죠. 다만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면서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나 파괴력을 같이 얘기하지 않는 건 의아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이 과연 뛰어난 존재일까 의구심도 들어요.”

-제인 구달 박사와의 인연이 있으시죠.

“최재천 교수님께서 제인 구달 박사님과 인터뷰를 통해 친분이 있으셨어요. 저희 연구실을 통해 방한하셔서 가까이 모실 수 있었죠. 생명다양성재단의 명예이사도 맡고 계신데 에너지를 끝없이 불사르는 모습을 보면 ‘처럼 사는 게 인생이구나’ 싶어요. 롤모델 같은 분이죠.”

-생명다양성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야생 동식물을 연구 조사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학문적 성과가 사회적인 영향을 갖도록 문화 콘텐츠도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가 본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올해처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나 재활용, 폭염 같은 환경 이슈가 집중된 적이 없어요. 더이상 겹가지 문제가 아닌데도 환경은 뒷순위로 미루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힘들어서 그런 데 쏟을 여력이 없다’며 돈을 바 꾸요. 모든 면에서 생태적

인 걸 고려하지 않는 듯이 느껴지곤 하죠.”

-무력함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없진 않아요. 나 하나가 살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도 들고 가슴 한 곳엔 허망함이 있죠. 그렇다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저는 늘 ‘일관되게 친환경적인 사람’보다는 ‘비일관되게 친환경적인 사람’이 낫다’고 말해요. 아무리 환경운동가라든가 전혀 에너지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모두가 최전선에 나서지 않더라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팀메이트가 되어 주는 게 중요하니까.”

-동생 김한민(디자인98-06) 동문도 활동가로 같은 길을 걸으시죠. 의지가 되겠네요.

“요즘엔 저보다 동생이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웃음). 동생은 해양환경보호단체 씨세퍼드와 환경 인권 관련 단체에 몸담으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은 함께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루고픈 일이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실생활에 반영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언젠가 ‘야생학교’를 세우고 창원 동판저수지 부근에 부지를 점찍어놨어요. 누구나 찾아와서 등록금 없이 야생을 배우고, 자연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박수진 기자

김 동문은

모교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생명과학부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야생에서 긴팔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를 연구한 한국인은 그가 처음이다. 현재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연구원이자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제인구달 연구소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 한국 지부장을 맡아 자연과 동물 보호 운동, 생태학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생태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작업에도 관심이 많아 영국 크랜필드대 디자인센터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 ‘비술’과 ‘김산하의 야생학교’, 번역서로 리처드 도킨스의 ‘무지개를 풀며(공역)’ 등이 있다. 동생인 김한민 동문도 환경운동가와 작가로 활동 중이다. 어려서부터 동물과 그림을 좋아한 형제는 함께 생태환경 그림 동화 ‘STOP!’ 시리즈를 냈다.

화제의 청춘

25세, 6·13 지방 선거 최연소 당선…“정치인은 리더 아닌 커넥터”

조민경 인천 연수구 의원

정치외교11-17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모교 동문이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민경(정치외교11-17) 구의원이 그 주인공.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연령인 만 25세 때 출마해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마저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당찬 그를 지난 8월 2일 연구구구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솔직히 이번 선거에선 소속정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당선된 것 같습니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했으니까요. 4년 후 선거에선 ‘조민경’이라는 이름 자체로 출마가 가능해지도록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동창신문이니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서울대 출신들에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변에서 기대하는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런 눈높이는 충족시키면서 안 좋은 선입견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동문은 구민들에게서 받은 수십통의 민원문자를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 해도 다른 구민이 보내온 경우 일일이 다시 살피고 답장을 보내주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동문은 인천 토박이로 구민들과 같은 행정구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서울 강남까지 광역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의 불편을 같은 버스를 타고 모교에 다녔던 시절이 있었기에 충분히 헤아렸다.



“정치인이란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을 또는 구민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민이 자신의 의견을 건강한 방식으로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해 리더가 아

니라 메신저나 커넥터인 셈이죠. 정치적 주장 또한 중장년층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하다못해 초등학교들도 자신의 불편을 얘기할 수 있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정치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하는, 가능성의 영역이 자의무의 영역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다는 조민경 동문.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항상 욕먹는 현실도 안타까웠다고.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도를 바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 매력을 느껴 정치에 뜻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후보시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받은 유권자들의 사심 없는 응원에 감동을 느낄 때도 많았다고.

“어리다고 할 만큼 젊고 장기적인 사회경험이 없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했었죠. 그러나 우려와 달리 유권자들은 신신해했고 놀라움과 함께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젊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보이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보다 다른 의원들에겐 팔뻔인 제가 위축되지 않고 잘 협력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염려해주셨죠. 투표권은 없지만 제 명함을 달라고 손 내미는 교복 입은 여고생,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게 데려와 ‘이 누나를 짝어달라’고 말하는 어린이, 고생 많이 한다며 음료를 건네는 어르신들까지.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 정치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이라는 구민들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태 기자

SAMSUNG

세계 최초 2G CDMA(IS-95A) 상용

세계 최초 3G WCDMA(HSDPA/HSUPA) 상용

세계 최초 4G LTE VoLTE, Multi Carrier, Carrier Aggregation 상용...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
늘 삼성전자가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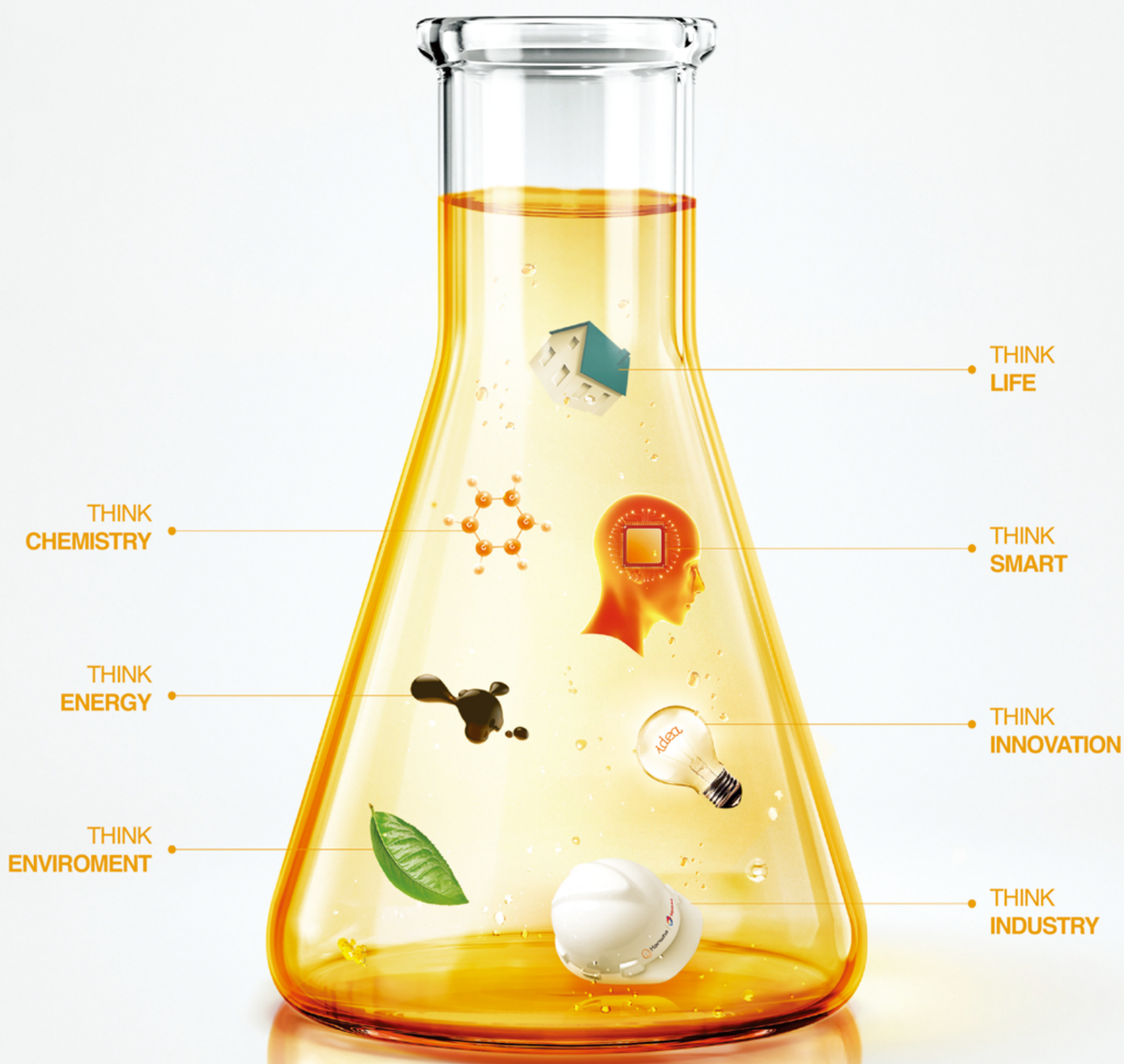
이제는 5G 입니다.



석유화학·에너지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Global Chemical & Energy Leader

한화토탈



한화토탈은 하나를 만들어도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기초소재에서 에너지제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더욱 풍요로운 삶과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임동창회장 인터뷰

“교양 프로그램 도입하니 회비납부율 90%”

ABKI동창회장
이덕원 (ABKI 571)
대운 대표이사



다. 회비를 따로 걷긴 하지만 그만큼 금액으로 이런 좋은 역사문화 탐방의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동창회 행사를 통해 동문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ABKI특별과정은 2010년 66명의 1기 입학생을 시작으로 현재 8기까지 수료 를 마쳤으며 약 500명의 동창회원을 보 유하고 있다. 특정영역을 고집하지 않는 특별과정인 만큼 동창회 활동도 다양하 다. 골프 및 등산대회 같은 체육활동부 터 클래식음악 감상 같은 문화활동까지 폭넓게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선정된 도서를 배부해 읽고 해당 도서의 저자를 초청해 직접 강의를 듣는 ‘조찬북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읽고 끝 나지 않는다. ABKI수강생들은 수료와 함께 논문을 제출한다. 주제는 자유지만 수시로 논문 미팅을 갖고 주임교수의 심 사까지 받는다. 분과별 선후배간 멘토링 으로 연결돼 학문적으로도 돈독한 우애 를 맺게 된다.

“책을 좋아하고 지식과 지혜를 사랑 하는 동창회원들의 특징에 걸맞게 학문 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계 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의 이름에 걸맞는 학술포럼의 제정과 운영이지요. 지금처럼 중앙도서관 관장과 긴밀히 협 력해 내년엔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 회장은 방송용 모니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대운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이 며 두아들을 결혼시키고 아내와 함께 살 고 있다. 한 달에 한번은 온 가족이 골프 여행을 다녀올 만큼 가족애가 두텁다.

중국시안 여행에 100명 참가
조찬북클럽 열어 저자특강도

단과대학 및 특별과정 동창회장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보통은 회장 본인과 1 대 1, 드물게는 동창회 사무처 직원과 함 께 2대 1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덕원(5기·사진) ABKI동창회장과의 인 터뷰 때는 김민철 사무국장은 물론 서 이종(사회80-84) 중앙도서관 관장까 지 동석했다. 인터뷰 장소부터가 관장 실이었으니 서 관장의 동석은 어찌보면 당연했지만,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 (ABKI)의 두 수장이 매우 긴밀히 협력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난 7월 31일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장실에서 이덕원 회장을 만났다.

“우리 특별과정은 실리에 얽매이기보 단 공통의 취미와 교양의 함양을 중심으 로 모임을 갖습니다. 특정업종에 한정되 지 않은 덕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동 문들이 함께 하고 있죠. 변호사, 중소기업CEO, 병원 원장, 전직 군 장성까지 교 류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인문·사회·자 연·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융복합 과정 이기에 다양한 학문을 통한 삶의 지혜와 경영의 묘안을 찾고자 하는 동문들이 많 이 참여하고 있죠.”

교류의 폭도 넓지만 동문들의 ABKI

에 대한 애정과 동창회 소속감 또한 대 단하다. 90%에 달하는 회비납부율이 이 를 증명한다. 이 회장이 아낌없이 회비 와 찬조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각 기수 회장들과 자주 통화하고 기회 닿을 때마 다 동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술선 수범했던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동창회 행사의 의사결정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인의식을 독려했 던 것도 한 요인이다.

“저희 동창회는 오는 9월 6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 시안으로 고적지 탐방을 다녀옵니다. 경비 일부를 동창회에서 지 원하긴 하지만 자비 부담도 꽤 돼요. 그 런데도 1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신청해 호텔 예약을 다시 잡아야 될 정도였습니

간호대학동창회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에 동문들 팔 걷었다



지난 7월 4일 열린 간호대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에 50여 동문들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박인숙 모교 간호대 교수가 ‘술과 사람의 건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간호대동창회(회장 임난영)는 지난 7 월 4일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102호 강의실에서 ‘대표자의 날’ 행사를 열고, 간호 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을 위한 발전기금위 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난영(67-71) 회장과 최스미(76-80) 모교 간호대 학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해 간호대 발전 방안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문간 친목을 다졌 다. 또 박인숙(81졸) 모교 간호대 교수가 ‘술과 사람의 건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간호학이 술 해설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술과 건강에 대한 유 익한 정보를 전달해줬다.

한편 ‘대표자의 날’은 다음 회부터 ‘동창 의 날’로 이름을 바꿔 개최될 예정이다. 대 표자라는 명칭으로 인해 참석 대상을 기대 표에 한정시키는 인상을 주는 등 일반회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힌다는 성 찰에서 모임 명칭을 새롭게 바꿨다.

나경태 기자

동문합창단

창단 10주년 맞이 단원모집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동 문합창단(단장 최봉희)이 신입 단원을 모 집한다.

동문합창단은 출신 단과대학이나 재학 시절 합창단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합창에 관심이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수영 지휘자와 박주미 반주자의 지도 아래 다양한 단과대학 출신 선후배가 어울려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연습은 매월 2, 4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울

서초구서인빌딩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동문합창단은 오는 12월 1일 창단 10주 년기념음악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분회 홈페이지와 단과대학동창회, 모교 행사 등에 출연해 왔으며 오는 8월 30일 서울합 창페스티벌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최봉 희 단장은 “많은 동문들이 합창의 아름다 움과 그것이 가져올 삶의 기쁨을 함께 나 누게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문의: 이메일 snuachoir@gmail.com / 최봉희 단장 010-9079-3108 가급적 이메일과 문자·카톡 연락>

알림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서는 정성껏 마련한 2019년도 탁상달력(또는 포켓수첩)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배포시기: 11월 말경

*포켓수첩은 56세 이상 동문님께, 탁상달력은 56세 미만 동문님께 보내드립니다.

*탁상달력에는 서울대 동문작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포켓수첩에는 이름을 각인해 드립니다. (단, 2018년 9월까지 납부자에 한함)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지난 7월 19일 열린 대전충남지부 세종지회 사무소 현판식에 오응준 회장과 고용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에 지회 설립, 30여명 회원 활동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오응준)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지회(회장 고용주·이하 세종지회)는 지난 7월 19일 세종시 보람동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소 현판식을 열었다.

세종지회는 인근한 대전충남지부의 산하단체 격으로 2012년 발족했다. 세종시

소재 공직자 등 회원 3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최근 대전·충남지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용주(체육교육83-89) 지회장은 후서의 날씨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동문님들을 만나 회원 증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LP동창회



지난 6월 11일 용인 골드CC에서 열린 GLP동창회 친선 골프대회에는 총 144명 37개 팀이 참가해 골프를 즐겼다.

김희만 동문 골프대회 우승

글로벌리더십과정(GLP)동창회(회장 김용직)가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용인 골드CC에서 제15회 친선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엔 총 144명 37개팀이 참가했으며, 친선조와 선수조로 나뉘어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선수조 경기에선 13기 동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개 인전에서 김희만 동문이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백상덕·김찬섭·권오운 동문 등이 함께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거머쥔 것. 13기 동문 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단체전 우승에 올랐다. 친선 조 경기는 남녀 및 시니어 부문 등으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우승은 김종석(25기)·이순자(14기) 동문이, 롱기스트는 문권식(35기)·장미경(34기) 동문이 차지했다. 그 밖에 이효승(26기) 동문이 얼리버드 상을, 김대희(27기)·김수정(32기) 동문이 베스트드레서 상을 받았다.

ACMP동창회

60여 회원 몽골서 4박5일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MP)동창회(회장 박태원)가 지난 7월 5일부터 9일 까지 4박 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해외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엔 박태원(4기 두산건설 부회장) 회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동문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졌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몽골 진출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 하는 등 동종업계 종사자들로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ACMP동창회는 지난 6월 27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의 해비타트 현장을 찾아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



ACMP동창회가 몽골에서 해외 워크숍을 개최했다.

다. 박 회장을 비롯해 36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보강도, 벽체 트러스 제작, 외벽 페인트 칠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한국해비타트에 후원금 500만원도 기탁했다.

FIP동창회



김기종 회장(앞줄 왼쪽 일곱째)과 홍성수(아홉째) 주임교수를 비롯한 동문 70여명이 FIP혁신성장 포럼에 참가했다.

김병연 교수 남북경협 강연

미래융합기술최고위과정(FIP)동창회(회장 김기종)가 지난 7월 1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국화룸에서 제2회 서울공대 FIP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1기부터 14기까지 총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김기종(8기) 회장이 우산을, 홍성수(전자계산기공학 82-86) 주임교수가 여행용 캐리어 저울과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기념품으로 협찬했다. 조찬 후엔 모교 경제학부 김병연(경제81-85)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김 교수는 북한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홍 주임교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FIP동문들이 남북 경제협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해안을 키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립 암센터·고대병원...동문 검진비 할인 아시나요

서울,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소재 18개 병원 건강검진비 할인

서울대 동문이라면 총동창회와 협약을 맺은 전국 병원 18곳에서 최소 10%, 최대 50%까지 감면된 가격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모교 유관 병원에서는 기존 건강검진비의 10% 감면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립암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의 감면율은 10%에서 30% 선이다.

일정한 검진 금액으로 검진받을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협약 병원 7곳에서 일반검진은 25만원, 종합검

진은 35만원, 정밀검진은 50만원에 받을 수 있다. 이중 한국의학연구소의 경우 수원과 대구, 부산, 광주에도 지점을 두고 있어 서울 외 지역 거주 동문이 혜택을 받기에 편리하다.

건강검진비 혜택 받으려면

- 1. 검진 예약 : 서울대 동문임을 밝히고 우대 요청
- *동문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 동문 여부 확인 : 병원·동창회 사무처 간 확인
- 3. 검진비 감면 : 검진비 결제 시 감면 적용

감면내용	병원명	연락처	감면 범위
1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배우자 부모 제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2000	*배우자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10~30% 감면	국립암센터	031-920-1212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 ydmchc@yuhs.ac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배우자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배우자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비급여 진료시 20% 감면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장례식장 15% 감면
최대50% 감면 검진금액: 일반검진 25만원 종합검진 35만원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폴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777	*장례식장 10% 감면
	제일병원	02-2000-7200(내선2번), 7401~3	
	차움건강센터 삼성분원	1800-7750(내선1번)	*일반검진 제외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평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02-3476-7760	

장학금 출연자 예우 프로그램

예우 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얼굴부조(SNU장학발당)	○				
장학금 명칭 부여	○	○	○		
장례서비스 지원	○	○	○		
감사패	○	○	○		
명절 선물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건강진단비 감면	○	○	○	○	○
주요 행사 초청	○	○	○	○	○
기념품	○	○	○	○	○
매월 동창신문 발송	○	○	○	○	○
기부금 영수증	○	○	○	○	○

장학금 출연자 경조사 무료 서비스

본회에 장학금을 5,000만원 이상 기부한 동문들에게는 근조기, 조화, 영정바구니 등을 비롯해 컵, 젓가락, 식기 등 동창회 명의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일반 동문들에게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장례 서비스 품목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 : 02-702-2233

경조사 서비스 품목

근조기, 경하기, 근조현수막 (대, 소),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동창회 로고 새겨진 컵·나무젓가락 등 1회용 식기



‘노 옵션, 노 쇼핑, 노 팁’ 고품격 동문 여행

‘노 옵션, 노 쇼핑, 노 팁’. 본회가 e삼흥투어와 함께 기획해 선보이는 오직 서울대 동문만을 위한 여행 상품의 특징이다.

동종 여행상품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과 여행을 즐길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최근 8박 9일간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정연옥

(KFL 8기) 동문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름하에 견장 떼고 무장해제한 무방비상태로 서로 편안하게 여행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에도 스페인 여행을 비롯해 각국의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준비돼 있다.

문의: e삼흥투어 02-771-3117

2018년 서울대 동문 여행 상품

No.	상 품 소 개	여행지	일정	출발일	상품가격
1	9일간의 기묘하고 슬기로운 스페인 여행 추석 원정대 대모집	스페인	8박 9일	2018-09-20 (목)	399만원
2	추석 티베트 패적 원정대 절찬리 모집중	티베트	7박 8일	2018-09-20 (목)	269만원
3	김미란 교수의 세 번째 초대	대만	4일	2018-10-06 (토)	119만원
4	다낭으로 떠나는 서울대 수학여행	다낭	3박 5일	2018-10-28 (일)	94만 9천원
5	베트남 다낭에서 수학여행 겸 GOLF여행	다낭	3박 5일	2018-10-28 (일)	139만원
6	겨울에 떠나는 환상의 오키나와 GOLF	오키나와	3박 4일	2018-11-30 (금)	189만원
7	오사카, 나라, 교토, 규슈 일본역사탐방	오사카, 나라, 교토, 규슈	4일	2018-12-21 (금)	149만원
8	라오스 안 가보셨죠? 놀랍습니다.	라오스	3박 5일	2018-12-22 (토)	139만원
9	장준영 박사의 미얀마 황금전설 투어	미얀마	3박 5일	2018-12-29 (토)	199만원
10	백제 문화탐방과 후쿠오카 겨울 힐링	후쿠오카	4일	2018-12-30 (일)	139만원
11	김미란 교수와 함께 홍콩 마카오 심천	홍콩, 마카오, 심천	5일	2019-02-02 (토)	159만원

시중 절반가 ‘서울대 기념와인’

본회가 출시한 ‘서울대 기념와인’은 기념일과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서울대 마크를 새긴 디자인, 와인계 최고 전문가인 ‘마스터 오브 와인’과 ‘마스터 소믈리에’가 만들고 보장하는 맛이 서울대의 명성에 걸맞은 와인으로 손색이 없다. 본회에서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와인은 영국 최대 와인그룹 ‘부티노’가 만드는 ‘아크뮌 샤또뇌프 뒤 빠프’와 한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라 품종으로 양조된 미국산 ‘몬테스 스타 엔젤’ 두 종류다. ‘아크뮌 샤또뇌프 뒤 빠프’는 그르나슈·시라·뽕소 3가지 포도 품종이 블렌딩돼 잘 익은

과일향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탄닌이 긴 여운을 선사한다. 함께 판매하는 서울대 기념잔에 즐길 수 있으며 판매금액의 일정액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가격 4만5,000원(아크뮌), 3만9,000원(스타엔젤). 와인잔 4만2,000원 (2본입).

문의 : 나라셀러 02-405-4351



TECHNICAL PAPERS

SAE의 기술 자료로서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및 자동차 분야 석학들의 감수를 거친 자료

STANDARDS

항공 우주, 자동차 그리고 상용차 제작업체들의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규격 자료

SAE MOBILUS™

<http://saemobilus.sae.org>

Your team has easy access to all the resources that fuel mobility engineering

EBOOKS

자동차, 항공 우주, 그리고 상용차 산업 전문가들이 집필한 서적으로 약 200권의 e Book Contents

MAGAZINES

자동차, 항공 우주, 그리고 상용차 산업 분야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간행물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TEL. 02-3474-5290(代) <http://www.kitis.co.kr>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9월 14일 마포 장학빌딩서 남북미술 ‘평화잔치’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 展
김병기 화가등 80명 220여점 전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신수정)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K-메세나네트워크(이사장 손은신)가 주관하는 남북한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가 오는 9월 14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부에 걸쳐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 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고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간 서울대총동창회가 문화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K-메세나네트워크 손은신(산업디자인82-91)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는 8·15 광복 73주년을 기념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남북한을 대표하는 작고 작가부터 청년 작가에 이르기까지 이념을 넘어 분단 이후 남북한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북한의 미술 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북한 작품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초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 특히 조선화의 경우 이러한 형식과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선전성도 있지만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미적 정서에 맞게 작품화 했다. 월북 대표작가 리석호, 리쾌대, 김관호, 길진섭, 문학수, 정종여 등이 북한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시에는 월북작가뿐 아니라 함창연, 정영만, 정창모, 최재덕, 정은녀, 선우영, 김상직, 김성민, 최성룡 등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손 이사장은 특별히 눈여겨 볼 작가로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높은 선우영 화가를

참여 작가

남한	김한기 박수근 이대원 정상화 김홍수 백남준 김병기 이동표 이강소 신광석 임종성 민정기 정옥란 노숙자 손문자 임옥상 박항률 서용선 김선두 유인수 김종선 신장식 주태석 이상봉 유장복 안말환 권용래 이계원 김남표 이용규 허진 안성규 권기동 박종호 윤정미 송민경 정직성 김성국 정종원 이호련 이은경 박진하 남재현 이우성 유용상 김상경 이홍선 채혜선 황연주 전인아 김시현
북한	길진섭 선우영 정창모 김상직 김성근 문화춘 최성룡 전 영 정영화 함창연 류정봉 최제남 김춘전 리병호 최재덕 홍운석 리재현 김기만 김청희 홍종원 김관호 김주경 리석호 오택경 정종여 김만형 리쾌대 문학수 한상익 정은녀 정영만 김승희 김성민 리률선 임군홍 최제남 홍천성 류룡선 리제수 리철 김광철 오향아 여인선



북한 선우영 작가의 금강산 천녀봉, 장지에 채색, 조선화, 290×197cm, 2004

들었다. 그는 “선우영은 섬세하고 밀도 있는 표현의 세화가로 조선화의 작품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작가”라고 소개했다. 남한 작가는 김한기, 박수근, 백남준, 김병기, 김홍수, 정상화 등 남한의 대표작가 작품부터 민병갑, 이동표, 이강소, 민정기, 임옥상, 강요배, 박항률, 서용선 등 원로 중견작가까지 폭넓게 출품했다. 102세 현역 작가 김병기의 최근작 ‘성자를 위하여’는 노작가의 열정과 새로운 정신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유, 문화, 평화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남북한 작가들의 예술혼과 작품의 내면에 흐르는 공통의 아름다운 몸짓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K-메세나네트워크 차원에서 평양에서 남한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추후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남북한 작가들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작업하고 전시 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옥상 작가의 인물레 홀씨 당신,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162.2×130.3cm, 2018

인터뷰 임옥상 (회화68-72) 임옥상미술연구소장

“남북교류 물꼬…예술이 텃으면”



이번 남북한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 전에 임옥상(회화68-72) 동문이 주제 그림이라 할 수 있는 대형 작품 ‘봄바람4·27’(위 그림)을 출품한다. 우리나라 민중미술의 대표 화가로 꼽히는 임 동문은 청와대 본관에 걸린 그림 ‘광장에, 서’로 주목받았다. 최근 에세이 그림집 ‘벽없는 미술관’이 재출간돼 그의 그림 세계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작업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촛불 혁명이 남북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봄바람4·27’은 저의 그런 밝은 기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기운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요. 또 한 작품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군사경계선을 넘는 장면을 그린 것이고요.” -출품작도 그렇지만 그린 모든 작품이 구상이에요. 추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술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시절 미국의 추상화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어요. 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불통의 그림이었어요. 외계인의 언어에 지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 관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작품을 할 때 가장 깊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민중미술 작가란 타이틀에 대한 생각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것에 부끄러운 점이 많지요. 제가 그 몫을 제대로 한 것이 있나 늘 자문합니다. 명실상부한 민중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중미술이라 하더라도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민중미술을 얘기할 때 거의 관념적으로

혹은 상투적으로 정치적 이념 비평을 하는 것이 전부지요. 그것도 인상비평의 한계를 벗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문 점이 없지 않습니다. 즉, 일종의 사회적 격리용의 낙인찍기였지요. 따라서 민중미술의 논리라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반체제적인 것으로 사회적 불평 불만자들의 엉터리 미학이란 것입니다. 민중미술가는 조형 언어적으로 거칠고 열등한 집단으로 미술사적으로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편견을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중미술이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셈입니다.” -적지 않은 연세이신데, 현실의 감각을 늘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닫는 경향이 생기죠. 예술가는 시대의 문맥을 읽고 예민한 감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감한 자기 혁신, 자기 타파, 자기를 계속 깨고 나가야 하죠. 요즘 ‘이숙(異熟)’이란 화두를 갖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되어 보기. 다른 것에 익숙하기. 죽음에도 익숙해져야 하고, 인간 중심,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세상 참라만상에 연민과 애정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탄짓을 해요.” 임 동문은 1950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나와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광주교대, 전주대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를 지냈다. 세계문화연구소 대표이며 현재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이다. ‘아프리카 현대사’, ‘바람 일다전’ 등 개인전 19회, 광주 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베이징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김남주기자

세 계 문 화 유 산

수원 화성

국공 재현
화를 보며 배우는 전통 무술인 국공을
관람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공 체험은 10명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플라잉 수원
헬륨 폭상상 기법지판 폭발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높이 32m, 폭 22m 규모로 최대 20명이 탈 수 있는
플라잉 수원은 70~15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즐거운
재미있는 수원여행

사람이 반깁니다
휴먼시티 수원

화성어차 | 구 화성영화사
조선시대 국왕이 탔던 여자를 재현한 화성어차는
편안하게 수원화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수원화성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H A N G U M C I T Y 휴먼시티 수원

벨로택시 | 전기 자전거 택시
친환경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자전거 택시로
문전가시로부터 수원화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며
수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 2 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1975년 중앙도서관 열람실

장학금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벅찬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 힘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겠구나...
그 때의 눈물과 감사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응모작 중 발췌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응모주제

장학금과 관련된 자유로운 수기
- 장학금 수혜를 통한 변화, 기부자에 대한 감사, 장학금 기부 동기, 장학금 관련 에피소드 등

응모자격

장학금 관련 사연이 있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 동문, 기부자,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등

응모방법

- 분량 : A4용지 1~2장 또는 공백포함 1,500자 내외
- 형식 : 한글, MS워드 형식의 전자문서 또는 자필작성분
- 제출방법 : 이메일 snuf@snu.ac.kr 제출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아래주소 참고)

※ 수상 안내 및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제출 시 성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소속정보(동문정보, 직장정보)를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응모일정

- 제출기간 : 9월 1일(토) ~ 9월 30일(일)
- 결과발표 : 10월 25일(목) 발전기금, 대학신문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 : 11월 초

시상내용

최우수상	1인	상장 / 상금	50만원
우수상	2인	상장 /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5인	상장 / 상금	각 10만원

※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참여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문의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기획팀
- 전화 : 02-871-1624
- 이메일 : snuf@snu.ac.kr

공동주최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大學新聞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일 경우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됩니다.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되어 홍보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1624 팩스 02-872-4149 문자 1666-2930 이메일 snuf@snu.ac.kr 홈페이지 www.snu.or.kr

월드컵 결승날, 크로아티아 거리 메운 응원단을 만나다



1. 프라하 구시가지 존 레논이 낙서한 벽 앞에서 동문들이 재미있는 포즈를 취했다. 2. 체스키 크룸로프 망토다리 아래서 기념촬영 3. 프라하 와이너리 식당에서 즐거운 만찬.
사진=박우민(의학88-93) 대전 우리들병원 원장

8박 9일 동유럽 여행기

누군가 “여행은 눈을 뜨고 꾸는 최고의 꿈”이라고 했다.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꿈 같은 9,00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았다. 넓은 아량과 포용력이 있는 성숙한 2018년 7월 동유럽여행팀은 진주알들의 모임 같았다.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재치로 여행 내내 많이 웃고 같이 떠들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생명력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2018년 하반기를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행에 있어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동행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름하에 견장 펴고 무장해제한 무방비상태로 서로 편안하게 시작했다. 마치 오래 사귀 친구처럼 허물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사소한 말에도 맞장구치고 정말 많이 웃었다. 어떤 분은 이번 여행에서 1년치 웃음을 다 웃었다고 했다. 이번 여행엔 서정숙(식품영양75-79)·전희동(공업화학75-79)·조균석(법학77-81)·이상기(서양사81-87)·박우민(의학88-93)·김순란(AIP 43기)·정연섭(FIP 9기)·정연옥(KFL 8기) 동문과 배우자들이 함께했다. 우리의 여행지 체코·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슬로바키아·헝가리 등 6개국은 유럽 역사에서 서로마제국이 망하고(476년), 동로마제국이 멸망(1453년)할 때까지 약 1,000년의 중세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다. 중세 유럽의 발자취를 찾아우리는 먼저 체코로 향했다.

중세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다

첫째 날 : 11시간 비행 후 프라하 하벨공항에 도착해 그곳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체스키부데요치에서 하루를 묵었다.

둘째 날 : 중세로의 시간여행은 13세기 지어진 체스키크룸로프성(城)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블타바 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 붉은 지붕과 둥근 탑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나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는 미리 예약하여 성의 내부, 영주가 살던 궁전과 바로크식 극장 등 중세

귀족생활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1638년 최고 권력자가 교황에게 선물할 때, 딱 한 번 사용되었다는 ‘황금마차’가 인상적이었다. 건축물이 다채롭고, 벽면은 화가의 캔버스 같다. 그야말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아쉽지만 일행은 망토다리에서 단체사진 찍고, 3시간 이동하니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잘츠부르크 대성당이 나온다. 두 번째 방문국 오스트리아다.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의 배경이 된 티라벨 정원, 게트라이데 거리, 모차르트 전시관을 방문하고, 호엔잘츠부르크 성을 거쳐 호텔 도착. 모차르트 전시관 관람 내내 가슴이 아렸다. 어린 나이에 왕과 귀족들 앞에서 공연하고 ‘유사귀족’ 체험을 하며 잘츠부르크에 적응 못한 채, 마차 타고 유럽 순회공연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모차르트. 요즘 악덕 프로덕션에서 흑사당하는 아이돌과 뭔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의 생각일까?

셋째 날 : 잘츠카머구트로 이동. 볼프강 유람선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고 아기자기하게 생긴 마을을 지나 산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까지 가보았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없이는 살기 힘들었나보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깨끗하고, 강물은 한없이 코발트빛으로 빛난다. 오후 국경을 넘어 슬로베니아로 이동, 보트를 타고 블레드 성에 올라 호수 경관도 감상하고 맛있는 케이크 먹고 다시 포스토이나로 이동했다. 보트를 탔을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금방 옆으로 기울어지고 때론 뒤집히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도 중심 잘 잡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때 전복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향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넷째 날 :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카르스트 동굴인 포스토이나 동굴에 도착. 우리는 유원지에 온 아이들처럼 들떠서 꼬마기차를 타고 추운 동굴 안을 관광하고 웅녀가 아니라 선남선녀가 되어 나왔다. 땅 위 뿐 아니라 땅 속 동굴까지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굴 안에서 어떤 분이 내게 묻는다. “혼자 있을 때 뭐 하나”고. 내 답은 이랬다. “회개합니다.” 한바탕 웃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국경을 넘어 크로아티아 제1국립공원 플리트비체로 가는 도중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아뵐싸! 우리 일행을 나흘간 안전하게 태워준 버스가 그만 앞차를 받은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자들은 찻집에 앉아서 흥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뜻하지 않은 사고 앞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그들의 인격에 다시 한번 감동 받았다. 여행 가기 전부터, 우리 일행 중에 의사, 변호사, 기자가 동행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얘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문제해결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동행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야호’ 외쳤다. 일종의 보험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 외의 분들도 매우 소중한, 한 분 한 분 사회가 매우 필요로 하는 분들이었다. 일행 중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사건 후 늦었긴 했지만 플리트비체 공원까지 가서 폭포 앞에서 사진도 찍고, 생선 정식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 우리는 늦은 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로 이동했다.

잊지 못할 부다페스트 야경

다섯째 날 : 자그레브 옐라치치 광장, 성마르코 성당 방문. 성마르코 성당은 독특한 지붕으로 유명한데 빨강, 파랑, 흰색의 타일을 모자이크로 크로아티아 문양과 자그레브의 문양을 나란히 장식하고 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 크로아티아, 오른쪽이 자그레브의 문양이다. 성당 외관은 고딕양식이지만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독특한 모양이다. 아침부터 비가 내린 이날 오후 5시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프랑스와 러시아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붙어 아깝게 패했다. 한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올 즈음엔 옐라치치 광장을 거리응원단이 절반 이상 메우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이동했다. 발라톤에 도착. 발라톤 호수는 헝가리 서부에 위치한 중부유럽 최대의 호수라고 한다. 거기서 버스를 탄 채로 다뉴브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마을 티하니수 도원을 산책하고 부다페스트로 이동.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 프랑스 세느강, 체코 프

라하와 함께 유럽 3대 장관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듯한 주변의 건물(아니 예술품)과 불빛, 세치니 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환상의 나라에 온 기분을 맘껏 느끼게 했다. 물론 유람선에서 내리는 순간 현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국회의사당 위를 맨돌던 새떼를 놓고 “드론이다” “아니 새가 맞다”고 어린이처럼 내기 아닌 내기하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여섯째 날 : 헝가리 영웅광장과 헝가리 풍 뾰족 지붕 일곱 개의 이색적인 어부의 요새, 겔레르트 언덕을 보고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로 이동. 구시가지에 있는 익살스런 동상, 휴밀(흠쳐보는 남자)과 브라티슬라바 성을 조망하고 또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도착.

일곱째 날 :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알려진 쉐브른 궁전 방문. 궁전 내부는 화려하고 우아한 로코코 양식으로 되어 있다. 마침 그곳에 클림트 작품이 있는데 가이드로부터 ‘유디트(Judith)’란 여인에 관한 얘기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즉 ‘이스라엘판 논개’인 것 같았다. 어느 나라나 난세에 여인들도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르트너 거리, 성슈테판사원을 보고 다시 국경을 넘어 프라하로 이동. 카를교 위에 세워진 많은 성인들의 동상 중 *안네모르크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야경을 감상한다. 소매치기가 많다는 말에 긴장되어 제대로 관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여덟째 날 : 프라하 구시가지지를 오픈 벤츠카로 신나게 달리다가 존 레논이 낙서한 벽 앞에서 내려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처럼 들떠서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재미있는 포즈도 취했다. 사진도 찍고 한껏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는 프라하성과 1,000년에 걸쳐 지어졌다는 성비투스 성당 안과 밖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정면으로 프라하의 세종대왕 격인 카를 4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 나라에 어울리는 성당을 만들게 한 건축물로 1344년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일품이다. 그곳에서 농담만 하던 일행 중 한 사람, 진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프라하 최대의 변화가인 바츨라프광

장에서 체코 커피도 마시고, 구시청사의 천문시계도 관람했다.

아쉽지만 18일 먼저 귀국하는 팀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가이드가 공한 다녀올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여행 중 늘 느끼는 거지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 다 내려놓고 비우면 자유롭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다. 바츨라프 광장에 있는 인도 발마사지 솥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았다. 잔돈이 생겨서 팁을 주었더니 머리까지 마사지해 준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인도 아가씨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맑은 공기, 청명하고 드높은 하늘

아홉째 날 : 뜻하지 않은 하루를 보너스로 더 받은 우리는 프라하 성벽을 거닐며 시가지지를 한눈에 내려다 봤다. 유명 예술인들이 문히 비세흐라드 공원묘지에서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작과 체코의 국민작곡가라고 불리는 스메타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게 크나큰 행운이었다.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과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들었는데 아마 이분들을 만나려고 그랬나보다 라는 생각에 전율을 느꼈다. 이번 여행 행사를 주관한 삼흥여행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원묘지 앞에 위치한 성 베드로와 바울성당도 관람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바울에 대해 잠시 생각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향긋한 풀내음을 맡으며 공원을 통과하여 프라하 공항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동유럽 나라들... 맑은 공기, 청명하고 드높은 하늘, 찬란한 태양, 그냥 그곳에 있기가 해도 모든 근심과 질병이 나을 것 같았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되어 ‘Blooming Again’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글=정연옥(KFL 8기) 통번역가
이상기(서양사81-87) 아시아엔-매거진N 발행인

※안 네포르크 : 왕비의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 왕이 왕비의 고백 내용을 말하라고 재촉했으나 끝까지 침묵하여 죽임 당함.

|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울대학교를 선도하는 산학협력 글로벌 리더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ign the Future,
Enjoy New Experience!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고객과 사회에 신뢰받는
글로벌 IT서비스기업이
되겠습니다.



Security

Block Chain

Big data

Platform



박찬욱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맡아

이사회 “올해안에 총장 재선출”



모교가 총장 후보자 진 사퇴와 성낙인 전 총장의 퇴임으로 인한 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처를 내렸다. 모교는 성낙인 총장 퇴임 다음날인 지난 7월 20일 박찬욱 교육부총장(사진)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가동했다. 이어 지난 7월 27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박찬욱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교수협 의회와 평의원회, 학원장회로 구성된 3자 협의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성낙인 전 총장은 지난 7월 18일 인사위원회에서 7월 22일자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박 부총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부총장은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총장 후보 사퇴에 따른 사태 수습에

나선다. 신회영 연구부총장과 기획·연구·교무·학생처장 등 임기 만료를 앞뒀던 본부 보직교수들도 대다수 유임에 동의하면서 행정 공백을 메우게 됐다. 기획부총장은 이근관 기획처장이 새 부총장 임명 전일까지 직무대리를 맡는다.

박 부총장은 지난 7월 25일 학내 구성원에게 서한을 보내 “작년에 일부 삭감된 국고출연금의 증액, 국정감사 대비 등 중요 행정 현안이 산적한 실정에 대학행정에 전념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서울대인 모두가 새 총장 선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이성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집행부는 차기 총장선출절차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외에는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도 총장선출제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앞서 학내 구성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데 이어 지난 7월 27

일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학내 구성원들에게 회의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로부터 3명의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겠다”는 입장과 “총장 후보 3명의 선정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학내외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은 총장선출 제도는 차기 총장 선출 이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에 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학내에선 총장선출 절차의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와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주체, 총추위 재신임 문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다. 모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논의 과정에 여교수회·교직원·학생·민교협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조는 비정규직 직원 참여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검증 결과 공개와 학생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회고 늘어나고 접히는 ‘액체 금속 전자회로’ 개발

고상근 교수 연구팀 성과

고상근(공업교육73·78)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김도윤 박사과정 연구팀이 최근 회거나 늘어나거나 접혀도 도선이 끊어지지 않고 전기전도성을 유지하는 액체 금속 전자회로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관심이 높은 플렉서블, 웨어러블 기기 등에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

지금까지 유연한 성질의 전자회로 연구에 주로 쓰인 그래핀이나 탄소나노튜브 같

은 전자섬유는 전도성과 유연성은 갖췄지만 열에 취약하고 제조과정이 복잡해 대량 생산이 어려운 편이었다. 대안인 갈륨 혼합물을 이용한 프린팅은 표면장력 때문에 평면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 교수팀은 평면뿐만 아니라 굴곡진 경사면에도 액체 금속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어 액체 금속 직접 분사 방식과 상변화를 이용한 액체 금속 이송 방식을 이용해 회로의 폭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액체 금속을 100마이크로미터 선폭으로 인쇄한 다음엔 한쪽으로 균일하게 잡아 늘이는 과정과 액체 금속을 올려 다른 기판에 옮기는 과정을 예닐곱 회 반복했다. 이를 통해 선폭 2마이크로미터의 액체 금속 전자회로를 만들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액체 금속 회로를 제작한 것은 고 교수 연구진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전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펌셔널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사진으로 보는 그때와 오늘

⑨ 여름 봉사 활동



1974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린 하계 농활 풍경

사진=모교 홈페이지



2017년 서울대총학생회 주최로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농민학생연대활동 모습

사진=총학생회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은 전국의 논밭에서 일꾼으로 변신해 구슬땀을 흘렸다. ‘농활’로 불리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이다. 1980년대 절정기였던 농활은 대학생이 농촌사회를 경험하고 농민의 문제를 몸으로 체득하는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이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농촌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이 많아졌다. 탈정치와 농촌 축소의 영향을 받았고 농활을 대체하는 활동도 다양해졌다. 교육소외지역에서 교육봉사를 펼치거나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해외봉사가 각광받고 있다. 한편으론 농촌이 처한 사회적 문제와 연대하며 일손을 돕는 전통적인 농활도 계속 이어진다. 모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충북 옥천 등지에서 농활을 펼쳤다.

숫자로 보는 서울대학교 <19>

한해 전기요금 190억원

사람 잡는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들이기가 겁나지만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전기사용량

전기사용량
1억8,056만
kWh

이 치솟는 것은 물론이다. 모교의 전기사용량은 얼마나 될까. ‘2017서울대학교 에너지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모교의 한 해 전기사용량은 약 1억8,056만kWh에 달했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90억원에 육박하며, 4만5,000여 세대가 1년간 소비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관악캠퍼스가 모교 전체 전기사용량 중 약 1억369만kWh를 차지했는데, 이는 서울 소재 32개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소비량이다. 고려대 5,058만kWh, 연세대 6,647만kWh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깝다. 6년 연속 서울지역 에너지사용량 1위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만 보고 모교의 전기사용량을 힐난해선 곤란하다. 대학 자체의 크기와 구성원 규모가 국내 어느 대학보다 방대하기 때문에 기숙사·강의실·사무실 등에서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전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연간 투자금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모교의 활발한 연구활동 또한 대량 전기 소비의 한 요인이다. 2016년 기준 공대의 전기사용량은 약 6,099만kWh인데 이는 같은 해 사회대·경영대·농생대·미대·법대·생활대·음대·전문대학원 등 8개 교육기구들이 소비한 6,119만kWh와 맞먹는다. 모교의 전기사용량 중 상당부분이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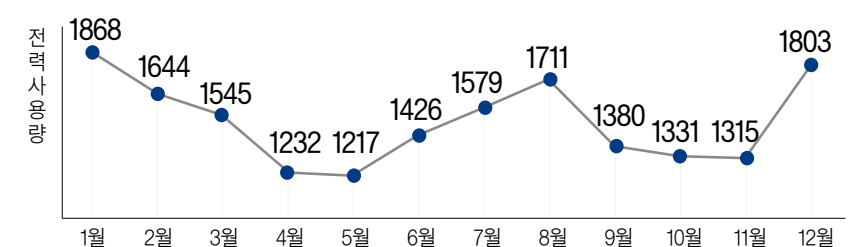
험실 및 연구시설이 밀집된 이공계 대학에서 소비되는 것이다. 모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관계자는 “연구중심 대학인 서울대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이 많고 실제로 써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보고 낭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 모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해 연간 80만k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한편 LED로 조명을 교체하고 감지센서를 설치하는 등 ‘하드웨어’ 부문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의 전기 절약에 독려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실천하고 있다. 각 건물별 에너지사용량을 시각 정보화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내가 아낀 에너지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등이다. 모교는 2016년 열린 ‘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모교의 전기사용량은 여름보단 겨울에 더 많았다. 월 단위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1월이 1,868만kWh로 가장 많았고 12월 1,803만kWh, 8월 1,711만kWh, 2월 1,644만kWh 순이었다. 반대로 전기사용량이 가장 적은 달은 5월로 1,232만kWh를 기록했으며 이어 4월에 1,232만kWh, 11월에 1,315만kWh, 10월에 1,331만kWh로 나타났다. 나경태 기자

월 단위 전력 사용량 변화

(2016년 기준, 단위 1만kWh)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인터뷰 (20)

“혈액암 치료 등 최적의 항암제 찾는다”



이우인
제약89-93
제약학과 부교수

-연구의 목적은.

“혈액암의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테아좀 억제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임상적인 효용성을 높이고,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테아좀이란.

“프로테아좀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분해를 담당한다.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개발돼 다발성 골수종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치료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반면 ‘간암, 폐암’ 등의 고형암종에서는 프로테아좀 억제제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형암 세포주를 이용해서 시험관 내에서 실험했을 때는 뛰어난 항암효과를 나타냈는데, 생체 내 실험에서 그 항암효과가 크게 저하됐다. 생체 내에서 약물이 신속하게 대사, 분해되면서 고형암 조직으로 약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예측해 왔지만 실제 연구로 검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프로테아좀 억제제의 임상적인 효용성을 제한하는 생물약제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까.

“본 연구는 기반 연구의 성격을 띤다. 시험관과 생체 내에서 약물의 변화와 암세포의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개발된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프로테아좀의 세포내 기능에 대한 기초 기전연구를 진행하면서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함께 추진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면서 프로테아좀 억제제의 새로운 약물전달기술을 개발하고 기반 연구를 함께 수행해서 신약후보물질

을 발굴하는 성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고형암 환자를 비롯해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지.

“세포 내에서 프로테아좀의 역할에 대한 기전연구와, 이를 위해 생체 내에서 약물 또는 단백질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분자 프로브 개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었다. 그러한 연구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신약과 새로운 약물전달기술을 개발하는 협력연구로 이어졌다. 이렇듯 세포와 생체 내에서 여러 분자생물학적 과정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를 응용해서 치료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된 치료약물이 생물학적, 병리학적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생물학적 기초연구와 새로운 치료약물 개발은 상호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암 관련 연구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은 장기에서 유발된 암종의 경우에도 분자적 특성은 매우 다르며, 그 특성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최적의 항암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의 기본 개념이다.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다른 연구전문성을 가진 연구자 간의 협력연구가 필수적이다. 국내 환경에선 다학제적인 협력연구에 대한 지원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사업을 통해 다학제적, 국제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돼 감사하는 마음이다.” 박수진 기자

*이 교수는 모교 약학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 연구조교수, 켄터키대 부교수를 거쳐 2014년 모교에 부임했다.

여름보다 뜨겁다, 재학생 192명의 봉사 현장

베트남·네팔·라오스 등 7개국
SNU 공헌유량단 하계 봉사

한 걸음 떼기도 힘든 무더위 속에 용감한 봉사 여정을 떠난 재학생들이 있다. ‘2018 하계 SNU 공헌유량단(이하 유량단)’에 선발된 192명의 유량단원들이다. 지난 7월 9일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안상훈, 이하 공헌단)은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2018 하계 SNU 공헌유량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모인 유량단원들은 해외 149명, 국내 43명으로 나뉘어 7개국 7개 도시에 파견됐다. 7월 17일 우즈베키스탄과 라오스를 시작으로 탄자니아, 베트남 빈딘, 네팔, 전라북도 군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8월 16일에는 마지막 팀이 인도네시아로 출발한다.

모교 유량단은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교 재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지향한다. 지식 자원을 활용한 적정기술력을 토대로 현지 환경에 맞춰 지속가능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기에 재방문을 요청하는 지역도 많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이 100여 시간에 달한다.

베트남 빈딘 지역에서는 현안인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올해로 7회째이자 마지막으로 빈딘을 찾은 모교 봉사단은 귀년대 학생들과 함께 현지에서 적정기술력을 적용한 빗물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지난 파견 때 설치한 빗물 정수 필터도 점검했다.

지난해 처음 방문한 탄자니아에서는 모교 적정기술거점센터가 있는 아루샤 지역의 카카티티 중학교에서 심화 과학 교육



식수 문제를 겪는 베트남 빈딘에 파견된 공헌유량단 소속 재학생들이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을 시연하고 불소 제거 필터 연구를 진행했다. 올겨울 최종 완성이 목표다.

라오스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신기술을 전파했고, 2015년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네팔에서는 예술 교육 나눔과 문화교류를 통해 현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영원무역의 후원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봉사단은 ‘문화·교육·의료’를 키워드 삼아 봉사를 펼쳤다. 오는 8월 16일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봉사단은 베트남에서처럼 빗물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두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악취를 제거하는 프로토 타입의 바이오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 유량단은 해마다 소외 지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작년에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거제와 울산, 목포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전라북도 군산으로 향했

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유량단은 군산 산복종 학생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진로·진학 집단 상담, 멘토링을 진행했다. 명상술·치료정원 가꾸기, 목공, 원예치료 등으로 구성된 ‘내 손 안에 작은 정원’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안상훈 단장은 “서울대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가 아닌, 현지의 이슈에 부합하는 적정기술력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이라며 “재학생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받은 많은 혜택을 사회와 세계로 환원하며, 선한 인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공헌유량단의 활동 내용은 홈페이지(<http://igsr.snu.ac.kr>)에서 볼 수 있다.

모교 단신

‘대전회통’ 반환소송 승소

모교는 최근 인터넷 경매업체를 상대로 1970년대에 분실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회통은 고종 2년(1865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법전으로 법과대학 전신인 법관양성소 교재로도 사용됐다. 2016년 어느 동문의 제보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모교 법학도서관 직인이 찍힌 대전회통이 매물로 올라와 있음을 알게 되면서 1970년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게 됐다. 당시 경매업체는 반환을 약정했으나 경매의 퇴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입법고시 합격 15명 중 8명 모교출신

최근 발표한 제34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 중 8명이 모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425: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일반행정직은 수석 합격한 재학생 이상은(의류 4학년) 씨를 비롯해 3명이 합격했으며 재경직에는 수석 합격자 한지환(경영 3년) 씨 등 5명이 합격했다. 법제직은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입법고시 합격자 중 모교 출신 비율은 2013년 27.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모교 다음으로 고려대가 3명, 한양대가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창의선도신진연구자 25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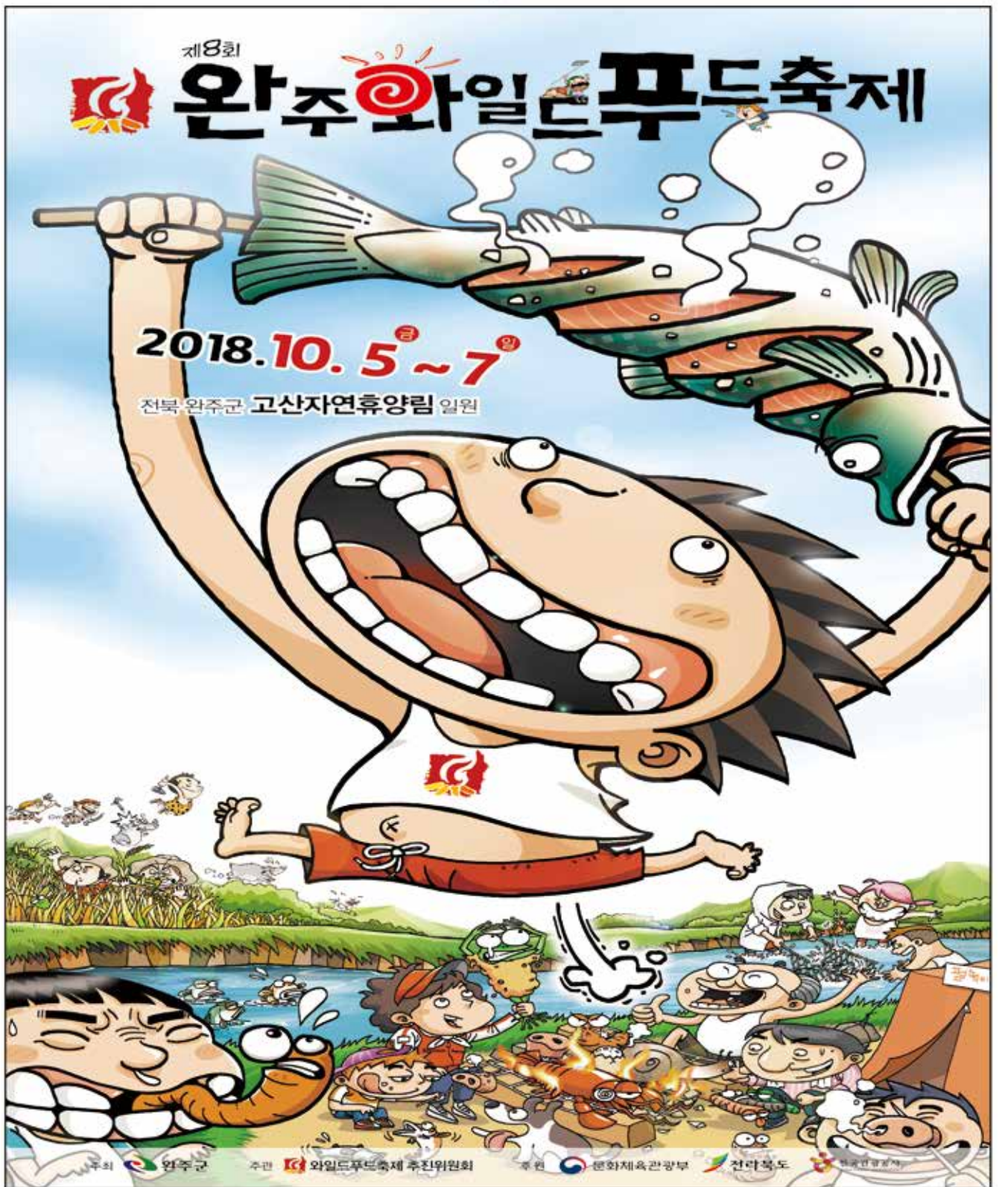
모교는 지난 7월 16일 ‘2018 창의선도 신진연구자’로 김지훈(물리 98-02) 물리천문학부 조교수, 임재현 경영학과 부교수, 이윤석(기계항공공학 99-06) 기계항공공학부 조교수 등 25명을 선정했다. 모교는 매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펼치는 신진 연구자들을 선정해 실험 분야 연간 1억원 내외, 이론 분야는 과제당 연간 3,0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언어교육원(원장 권혁승)은 지난 7월 1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제14회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열었다. 언어교육원 재학생 700여명 중 예심을 거쳐 선발된 19명이 ‘한국 사람, 한국 문화, 나의 한국 생활’을 주제로 자유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은 일본인 유학생 김효신 씨가 받았다.

관정도서관 VR체험관 설치

중앙도서관 관정관 멀티미디어실에 최근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스튜디오가 개장했다.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VR 관련 교육이 이뤄지는 세미나실로 구성됐다. 9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장스여성병원
JUNG'S WOMEN'S HOSPITAL

사랑과 믿음이 있는 병원, 휴일이 없는 병원,
장스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약속 합니다.

- + 장스여성병원은 **제왕절개율이 낮은 병원**(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 + 구리장스 여성병원은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병원**(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 + 피부관리, 비만, 보톡스, 노화방지, 지방흡입술, 산후관리





○ 서울장스여성 병원 원장
○ 구리장스여성 의원병원 원장

대표전화 | 서울장스여성병원 02-490-4114
구리장스여성의원 031-550-3114



megastudy 

업 / 계 / 최 / 다*
**서울대
465명**

**메가패스와 함께하면 대입성공,
다음은 너야!**

고1·고2 메가패스는!

완벽대비
내신·수능·논술
철벽대비 강좌

전원출동
전 영역 핫한
모든 선생님 참여

무한수강
몇 번이고
반복 학습 OK

더 놀라운 것은!
최저 월 2만원대



자세히 보기

*동종업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2018년 3월 8일 확인)

www.megastudy.net

아버지의 카메라는
I am your Energy

기름 때도, 슬픔 때도, 웃음 때도, 울 때도,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던 아버지의 카메라.
가죽끼리 소중한 추억, 하나라도 더 남겨 놓으려고,
셔터를 누르기 바르셨던 당신의 그 마음,
아버지가 되어서야 헤아려 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IESUS
VIA
VERITAS
VITA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김상복 (SNU 57학번)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CHANCELLOR



경주 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http://www.gjucc.or.kr>

경주 문화재 야행 가슴 뛰는 서라벌의 밤!

2018 7. 27 FRI - 7. 28 SAT (1차)
8. 24 FRI - 8. 25 SAT (2차)
18:00 ~ 23:00

경주 교촌한옥마을

주최/주관 경 주 시 경 주 문 화 원 후원 문화재청 경 상 북 도 경주시 문화재과 054.779.6102 | 경주문화원 054.743.7182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1 듀오
1577-8333

대표이사 박수경 [84학 소비자학과]

결혼이면,
만나게 해 듀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
그 사랑은 가족의 수만큼 늘어날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방법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정보업계 1위] *듀오는 업계 유일의 '취업률 대상업인'(종자산 100억 이상 기업만 해당)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10위 안에 재직상환을 공개하는 투명하고 실직한 기업입니다.
(2016년 매출액 기준)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00031

동문맛집

신민섭 루블랑-에콜리 오너 셰프

소비자아동01-08

좋아서 하는 취미로 생계를 해결하고 조금은 여유롭게 즐기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확행-위라벨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부상하는 요즘 이미 4년 전부터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서울대 동문이 있다. 프랑스식 레스토랑 ‘루블랑’과 수제 소시지 전문점 ‘에콜리’의 신민섭(소비자아동01-08) 오너 셰프가 그 주인공. 루블랑은 개업 후 1년 만인 지난 2015년, 국내 첫 레스토랑 평가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시간을 내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맛집’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4년 연속 등재됐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에콜리에서 신민섭 동문을 만났다.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조직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에선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빨리,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보니 매너리즘도 일찍, 자주 느끼곤 했어요. 몇 차례 극복하기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직업을 탐색했고 평소 좋아하던 요리

를 정식으로 배우게 됐죠.”

신 동문은 모교에 입학하면서 본가인 대구를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했다. 자취생인 탓에 어느 정도의 요리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졸업을 앞두고 함께 구직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고, 자연스럽게 신 동문의 자취방은 ‘모두의 휴식처’가 됐다. 취업준비에 지친 친구들에게 3분 카레나 라면을 대접할 수 없었던 신 동문은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불붙으면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게 됐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취향은 까다로웠던 친구들의 입맛도 거들었다. 자취방의 좁은 주방에서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다, 맛있다’ 하는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의 휴식처’는 곧 ‘모두의 레스토랑’이 됐고 요리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요리의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취업을 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식재료 및 식기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사들였습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르 꼬르동 블루의 한국 분교에 등록한 것도 처음엔 그



저 취미였죠. 셰프가 돼야겠다는 다짐보단 요리가 재밌으니깐 더 깊이 즐기고 싶었던 거였어요.”

좋아서 시작한 요리 공부였지만 일과 학

연남동에서 수비드 삼겹살에 맥주 한 잔 어때요?

업을 병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장인의 업무가 일과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닌 터. 금요일 밤이면 쉬지 않고 이어지는 회식과 접대 탓에 토요일 아침 등굣길은 숙취로 인해 울렁거리기 일쑤였다. 1년이 지난 즈음 고비가 찾아왔다. 마냥 취미로 삼기엔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았고 셰프로 전향하자니 관련 업계엔 아무런 연고도 없었다.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릴 때 장인의 말 한마디가 신 동문을 잡아줬다. 르 꼬르동 블루 한국 분교의 교수이자 까다로운 프랑스인 셰프한테서 뜻밖의 칭찬을 들었던 것. 용기를 얻은 신 동문은 2년 동안 주말도 없이 요리를 배웠고 2014년 홍대에 루블랑을 개업하기에 이른다.

“서른 넘어 뛰어난 길이다 보니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기도 애매하고 그쪽에서 받아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제 가게를 차렸죠.

개업하고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날이 수도룩한데도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가 목이 썩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 서서히 입소문이 퍼져나갈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찾아오

는 손님 한분 한분이 정말 소중했어요.”

루블랑 대표메뉴는 수비드 삼겹살. 육질이 뛰어난 두륜 돼지만 사용해 17가지 향신료로 7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 7시간 훈연 후 다시 또 하루를 말리는 등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신 동문은 루블랑의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식재료로서 소시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에콜리를 개점, 수제 소시지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는 것. 국내에선 아이들 간식으로 인식이 굳어져 있지만 유럽에선 와인에 곁들여 즐길 만큼 먹는 법도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기술력만 받쳐준다면 셰프의 창의성이 폭넓게 가미될 수 있고, 다른 식재료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홍대에 위치한 루블랑에선 뜻하지 않게 모교 후배들을 만나곤 합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어 계산대에서 종종 후배들의 학생증을 건네받기도 하거든요. 맛있게 드셨냐고 물어도 보고 기분 좋게 10% 할인도 해줬어요. 동문들께서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신다면 작은 성의지만 1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루블랑-에콜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경태 기자
문의: 070-8849-2040

작가의 정원 ❸

생 폴 드방스(Saint paul de vence)

샤갈이 살았던 정원 같은 마을

이 마을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을 산책하는 느낌이다. 이곳은 나지막한 산의 정상에 성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며 돌로 집을 짓고 길도 포장하였다. 거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자연환경이 못 된다. 하지만 내가 이곳을 정원으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샤갈의 그림에서 나오는 작은 집들과 꽃들이 이 마을에서 중첩되기 때문이다. 마을 이름은 생 폴 드 방스(Saint paul de vence)이다. 이곳은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휴양도시 니스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니스에서 이곳으로 오는 버스가 있어 30분 남짓이면 도착한다. 이곳에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이 97세로 사망할 때까지 마지막 20년을 살았다. 그리고 마을 공동묘지에 샤갈이 잠들어 있다.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지금의 벨라루스)의 작은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화가이다. 그는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힌다. 나는 중학교 때쯤 샤갈의 그림을 미술책에서 우표보다 조금 큰 크기의 그림으로 처음 보았다. ‘아, 화가들은 꿈을 이렇게 그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의 진품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두둥실 날아다니는 초록색 염소, 하얀 비둘기, 꽃다발 등을 보면서 마치 꿈을속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샤갈의 자서전을 읽고 나니 그의 그림에는 고향과 민족에 대한 애착함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샤갈은 그의 그림에 꿈이 아닌 그

리움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생 폴 드 방스는 성벽 사이에 있는 아치를 통과하여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서니 중세 시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 성벽은 프랑수아 1세(Francis I)가 1537년부터 1547년까지 건축한 방어용 성벽으로 오늘날까지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한 가운데에는 교회당이 우뚝 서 있어 중세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오랜 세월로 반들거리는 돌 포장을 따라 골목길

에 특별대우를 해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작은 꽃다발을 그의 묘에 올려놓았다. 나도 다음에 오게 되면 그에게 헌화하고 싶다.

그런데 샤갈의 마을이라 불리는 생 폴 드 방스에는 샤갈의 진품 그림이 없다. 가까운 곳에서 그의 그림을 보려면 니스에 있는 국립 샤갈 미술관으로 가면 된다. 이 미술관은 1969년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설립을 주도하여 1973년 개관되었다. 샤갈의 성서화 보존을 위해 설립되어 처음에는 ‘샤갈의 성서화 미술관’으로 불렸다고 한다. 약 4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중앙홀에 전시되어 있는 ‘인간의 창조’, ‘노아의 방주’ 등 구약성서에 관한 유화 연작 17점이 특히 유명하다. 그리고 작은방에 삽화를 그려 넣은 그의 시집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에 ‘정원(Jardin)’이라는 시가 있다. 프랑스어로 쓰여 있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삽화를 보며 그가 그리워한 정원을 상상해 본다. 이곳은 여러 화가의 그림을 함께 전시하는 대형 미술관과는 달리 오롯이 그의 작품 세계에만 빠져들 수 있어서 좋았다. 나오면서 미술관 건물을 다시 보니 건물도 샤갈의 그림에서 받은 느낌을 흐트러트리지 않게 아주 심플하고 단아하게 디자인되었다. 그 앞의 정원 또한 올리브 나무와 종려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를 심어 초록색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화려하지 않은 정원 또한 그의 작품에 대한 감동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게 하였다.

글 사진 문현주(농가정74-78) 가든 디자이너

[미술산책 7]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파르테논’

로렌스 알마-타데마, ‘페이디아스와 파르테논 프리즈’, 1868-1869. 버밍엄 박물관과 미술갤러리 소장

낭만주의 화가 상상력 입은 그리스 조각

파르테논 신전의 열주랑 안쪽 본체 처마를 둘러싼 프리즈 주변으로 비계가 설치되어 있다. 조각상들 주변으로 쳐진 경계줄을 따라서 관람객들이 조각상들을 구경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오늘날의 전시장 풍경과 다르지 않다. 안쪽에서 이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화려한 옷차림의 사내는 아마도 제작을 총 지휘한 페이디아스일 것이다. 브뤼셀을 본거지로 활동하던 화가 알마-타데마(Lawrence Alma-Tadema, 1836-1912)가 영국 박물관에서 이 유명한 조각상들을 처음 마주했던 것은 1862년이였다. 수년 후 그는 파르테논 신전이 정식으로 봉헌되기 전에 고대 거장이 동료 아테네 시민들에게 작품을 선포하는 상황을 화폭에 담았는데,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이 바로 프리즈의 채색이다. 당시는 이미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의 채색 문제가 유럽 학계를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였다. 18세기 후반에 헤르쿨라네움과 폼페이에서 강렬한 색깔로 장식된 고대 건축과 유물들이 다수 발굴되면서, 채색 문제는 고고학과 예술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836년 영국 왕립 건축협회는 런던에 소장된 파르테논 조각상들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프리즈의 인체 부조는 결코 채색이 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건축가 존스(Owen Jones, 1809-1874)의 생각은 달랐다.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 본관이었던 수정궁이 상설전시관

으로 1854년에 재개관했을 때, 그는 그리스 전시실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채색 파르테논 프리즈 모델을 선보였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 수정궁 박람회장의 기념 홍보물이나 사진들 가운데 이 ‘채색 프리즈’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 관람객들의 호응 또한 높지 않았던 듯하다.

이제는 고대 그리스 조각의 채색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채색되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특히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을 고대 그리스 미술의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는 이들에게 이들의 알록달록하고 요란한 이미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알마-타데마가 위의 작품을 구상할 당시 시덴햄의 수정궁 박람회에서 존스의 채색 복원 모델을 직접 보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후자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알마-타데마는 푸른색 배경에 밝은 갈색 피부와 검은 머리의 인물들로 프리즈 부조를 재현했지만, 존스는 파르테논 프리즈의 인물들이 원래 흰 피부와 금발, 연푸른색과 분홍색 의복 차림으로 채색되었다고 추측하고 이에 따라 복원 모델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약 2,000년 전의 미술에 대한 낭만주의 화가의 상상력과 건축가의 ‘과학적’ 추리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현된 점이 흥미롭다.

글 조은정(서양화87-91)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

화제의 공연

신진 작곡가와 그의 친구들 모교서 우정의 무대



정혜윤 작곡가
‘Beyond Classics, The Lyrical 15’
8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예술관 콘서트를

올해 서른 살인 작곡가 정혜윤(작곡07-13·사진) 동문. 신진 작곡가지만 작곡 경력은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다. 15세 때 처음 작곡을 시작해 선화예술중, 서울예술고 작곡과를 거쳐 모교 작곡과를 졸업했다. 그동안 작곡한 곡들 중 열다섯 곡을 추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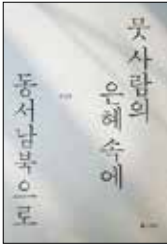
‘Beyond Classics, The Lyrical 15’를 타이틀로 8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예술관(49동)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예고 시절부터 동기인 바이올리니스트 윤수정(기악07-11) 동문, 피아니스트 현가람(기악07-11)·장혜리(기악07입) 동문과 첼리스트 김홍민(기악03-09) 동문 등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정 동문은 작곡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어릴 적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군가 만들어놓은 곡이 아니라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15년간 쓴 곡들은 동요와 가곡, 성가곡, 기악곡과 전자음악을 넘나든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클래식 선율의 올림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다”. 10대에 쓴 곡들은 클래식에 본질적 바탕을 두고 연주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15세에 작곡한 ‘Abide in memory(기억에 남다)’는 첼로와 피아노의 올림이 자연스럽게 그리운 감정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17세에 작곡한 ‘Exploration’과 19세에 작곡한 ‘Seeking’은 두 대의 피아노 연주곡의 특성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곡이다. 10년 전 ‘Exploration’을 연주한 현가람·장혜리 동문이 성숙해진 연주를 선보인다. 20대에 썼던 곡들에선 보폭을 조금 더 넓혀 크로소버를 시도하고 클래식 기반에 한정된 소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느낌의 곡을 썼다. ‘Lyrical pledge(서정적 맹세)’는 내년 비폭력 독립항쟁 100주년 기념곡으로 주요 주제에 5음 음계를 사용해 동양적인 색채를 표현했다. ‘고문서(필사본)’라는 의미의 ‘Codex’는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을 철저히 재현했다. 이러한 곡들은 굳이 작곡 연대 순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승전결의 흐름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작곡가 개인의

이력을 나열했다기보다 서정적인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기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정 동문은 음악저널콩쿨 1등, 부산음악협회콩쿨 1등 등 다수의 작곡 콩쿨에서 수상했다. 2017년 여성신문사 공연예술분야 신진여성문화인상을 받았다. 모교 미대에서 영상매체예술을 복수전공하고 개인적인 음악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분야를 넘나들며 협업 활동도 펼쳐 왔다. 루이비통 사회공헌 프로젝트 ARTisans,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기관 FAi-AR 레지던시에 참가하고 수원연극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작품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촉망받는 젊은 작곡가의 미래를 ‘미리보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동문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 창작곡이 소수 애호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층 가까워지고 사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매 문의:010-8484-8555

BOOK

못 사람의 은혜 속에 동서남북으로 강신항(국문49-53) 전 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 정양완(국문49-56)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월인·40,000원



국어학자 강신항(국문49-53), 국문학자 정양완(국문49-56) 동문 부부가 1967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학회와 강의 등으로 다닌 여행기를 엮었다. 주로 강

동문이 펜을 잡아 만난 사람과 먹은 음식, 주고받은 선물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처음 유럽 학회에 참가해 호기심 많은 외국 학자들과 김치를 나눠먹은 추억, ‘서안행 급행열차 승무원이 돈과 담배를 희망했으나 아무것도 못 주어 가슴 아프다’와 같은 단상도 스쳐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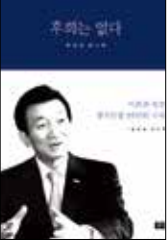
차를 마시며 나를 찾는다 공종원(철학58-62) 언론인 차의 세계·15,000원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온 공종원(철학58-62) 동문이 월간 ‘차의 세계’와 ‘선문화’ 등에 기고한 글을 선별해 엮은 책. 차 개론서에 가까운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차가 바람직한 현실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차 고장을 방문해 차문화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또 한국차의 세계 속 위상을 살펴보면 신라 한송정에서 시작된 한국 차의 역사도 훑는다. 중국, 일본, 유럽,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차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 ‘차문화 국제교류의 현장’에서는 한국이 주도하여 한·중·일·대만 간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해 느낀 점을 보고하고 있다.

후회는 없다 변정일(법학60-64) 헌정회 법·정관개정특별위원장 물레·25,000원



변정일(법학60-64) 동문의 회고록 ‘후회는 없다’는 35년 정치인생과 그 속에서 함께 했던 한국정치사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6·25전쟁과 4·19,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차량 압수수색영장, 10월 유신과 유신 법관, 10·26 사태, 정풍운동, 조창기 헌법재판소, 정주영 대통령 대표, 이회창 대표, 제주4·3 등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 근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하다.

하늘을 디디고 땅을 우러르며 홍승수(천문기상63-67) 모교 명예교수 공존·14,000원



‘하늘을 디디고 땅을 우러르며’는 ‘코스모스’ 번역가로 유명한 홍승수(천문기상63-67) 모교 천문기상학부 명예교수의 산문집이다. 홍 동문은 조지프 실크의 ‘대폭발(The Big Bang)’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는 등 과학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제자인 이강환(천문89-93)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이 ‘엄격한 선생님의 살가운 이야기’라고 평한 것처럼

책은 아버지, 남편, 교수, 천주교 성도, 사회인으로 느끼는 일상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우연히 만나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과 찰나의 연들에 숨을 불어넣고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표현했다.

바울의 영성신학 오우성(경영66-74) 계명대 명예교수 빛을 여는 책방·14,000원



‘바울의 영성신학’은 신학성경의 영성시리즈로 저자 오우성(경영66-74) 교수의 ‘요한의 영성’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된 책이다. 이제까지의 바울 이미지는 신학자 바울이나 선교사 바울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저자는 이 책에서 바울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바울의 바리새적 영성부터 시작해 논란이 많은 그의 회심과 소명, 그가 받은 계시와 신학, 자비량 선교 상황, 그리고 바울 영성수련의 여정을 영성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울 생애를 이끌어 온 영성을 다룬다.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김형오(외교67-71) 전 국회의장 아르테·19,800원



“이럴 때 김구 선생이 라면 어떻게 했을까?” 김형오(외교67-71) 동문이 묻고, 김구가 대답하고, 설명과 해설을 덧붙여 문답식으로 구성된 새로운 ‘백범일지’. 쉽고 간결한 문체, 깊고 풍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는 백범일지가 새롭다. 여전히 어려운 시대, 백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

한 지금, ‘백범일지’에 담긴 김구의 올곧은 정신과 신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용기와 지혜의 말을 다시 읽는다.

북한산 바위(한국의 서정시 112) 정의홍(의학75-81) 강릉 솔빛안과 원장 시학·9,000원



정의홍(의학75-81) 동문이 5년 전 서울살림을 접고 고향 강릉으로 귀향해 평온한 일상을 담담하게 그린 시집. 그의 시들은 시골집에 내려와 답답한 답답 하나 받은 것처럼 편안하다. 정 동문은 “그러나 저의 밍밍한 글에도 간혹 쓴맛 단맛이 있고 더러는 아픈 맛 몽글한 맛이 있어 아찔다가 그것들이 가슴 꼬트머리에 걸려 마음에 작은 무늬 하나 남겨놓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말한다.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사법88-9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학동네·13,500원



TV 드라마로 인기를 얻고 있는 JTBC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그리되, 그것을 재판하는 판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솔직하게 그려보고 싶었다고 밝힌 문유석(사법88-92) 동문은 이번 소설에서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판사들은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적이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알기 쉽게 들려준다.

EXHIBITION

도자공예가 서동희 동문 특별전
10월 5일까지 자양동 바이블도자예술관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학교 도자공예과 명예교수가 최근 독일 도예 전문 학술지 ‘뉴 세라믹스’에 작품이 등재된 것을 기념해 여는 특별전. 서 동문은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창세기 내용에 감명 받아 흙 속에 생명력을 담는 작업을 해왔다. 성경의 민수기에 영감을 받은 ‘살구 열매’ 등 뉴 세라믹스가 주목한 작품들과 신작 5점 등 2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은 전화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010-2271-2257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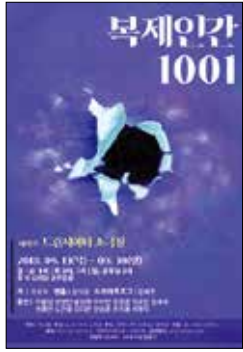
김민기 동문 연출 ‘지하철 1호선’ 9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송동 학전블루소극장



연출가 김민기(회화69-78·사진) 동문의 대표작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10년 만에 돌아온다. 1994년 초연 이후 4,000회

공연 동안 71만 관객이 든 작품이다.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등 배우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독일 원작을 각색해 연변 체너가 바라본 지하철 1호선의 풍경에 1990년대 한국사회를 담아낸다. 시대 배경은 그대로이지만 음악은 새롭게 단장했다. 문의: 학전 02-763-8233

주수자 동문 극작 ‘복제인간 1001’ 9월 13~30일 동송동 드림시어터 소극장



소설가 주수자(조소72-76) 동문이 극작한 SF실험극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 ‘복제인간 1001’은 해질녘부터 그날 자정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의 복제가 아닐까’를 질문한다. 박인성 문학상을 수상한 주 동문의 소설 ‘빛소리 몽환도’ 또한 희곡으로 각색된 적 있다.

문의: 010-2340-3384

CULTURE CHART

8월 첫째 주 기준

베스트셀러 순위 / 도서명	자료=교보문고 작가
1 역사학 역사	유시민
2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3 열두 발자국	정재승
4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곰돌이 푸(원작)
5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6 모든 순간이 너였다	하태완
7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8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전승환
9 고양이 1	베르나르 베르베르
10 언어의 온도	이기주

영화(박스오피스) 순위 / 영화명	자료=영화진흥위원회 감독
1 신과함께-인과 연	김용화
2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크리스토퍼 맥쿼리
3 인크레더블2	브래드 버드
4 극장판 헬로카봇: 백악기 시대	최신규, 김진철
5 신비아파트: 고개골의 비밀의 동굴	김병갑
6 인랑	김지운
7 엔트맨과 와스프	페이트 리드
8 어느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9 마녀	박훈정
10 공작	윤종빈

뮤지컬 예매 순위 / 공연명	자료=인터파크 출연
1 웃는 남자(블루스퀘어)	박효신, 정선아
2 프랑켄슈타인	류정환, 카이
3 웃는 남자(예술의 전당)	박효신, 정선아
4 인터뷰	민영기, 이경명
5 바넘	유준상, 박건형
6 브로드웨이 42번가	이종혁, 배해선
7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박은태, 차지연
8 태양의 서커스-쿠자	태양의 서커스
9 번지점프를 하다	강필석, 김지현
10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윤공주, 윤형철

클래식 음반 순위 / 음반명	자료=교보문고 음반사
1 조성진, 정명훈,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	DG
2 일 디보: 타이리스	Decca gold
3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	클라우드뮤직코리아
4 파가니니 전집 녹음	Dynamic
5 조성진: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앨범	DG
6 정경화: 포레, 프랑크, 드뷔시...	Warner classics
7 조윤경: 명상-첼로 앙코르	더클래식아트
8 포레스텔라: EVOLUTION	Decca black
9 줄리니와 빈필의 8개 명반	DG
10 토비아스 펠트만: 시벨리우스&...	Alpha

가요 음원 순위 / 노래	자료=가온차트 가수
1 Way Back Home	손
2 Dance The Night Away	트와이스
3 두두두두	블랙핑크
4 너나 해	마마무
5 1도 없어	에이핑크
6 여행	볼빨간 사춘기
7 Forever Young	블랙핑크
8 Love U	청하
9 동화	멜로망스
10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어깨결림 / 근육통 / 허리통증 / 관절통 / 신경통 / 타박상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



BRAND



냉찜질로 붓기제거! 온찜질로 통증완화!
냉온찜질로 두번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의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31) 707-3460

SMART
SENSOR
BUSINESS



Automation machine

Leuze electronic

the sensor people

스마트한 산업자동화 센서솔루션

Industry 4.0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최상의 파트너, 로이체일렉트로닉

스위칭 센서 | 측정용 센서 | 광모뎀 |
바코드 스캐너 | 스마트 비전 | 산업 안전 제품 | 악세서리

로이체일렉트로닉

www.leuze.co.kr | T 031 382 8228

No.1 Partner, Everyday with Farmsco
www.farmsco.com



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합니다.

Hypork
하이포크

Farmsco

주식회사 팜스코는
사료에서 양돈, 식육,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강한 식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식회사 팜스코는 사료, 계열화, 신선식품, 육가공 사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축산전문 기업입니다.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e-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강찬균(응용미술57-63 모교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지난 6월 28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출.



문희상(법학64-68 국회의원) 지난 7월 13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



양호승(축산65-69 한국월드비전 회장) 지난 7월 4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0대 회장에 취임.



정운찬(경제66-70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지난 7월 3일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에 취임.



안진홍(식물68-72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황규영(전자공학73졸 KAIST 명예교수) 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박영인(제약70-74 전 고려대 교수) 지난 7월 12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에 선임.



이주영(법학70-74 국회의원) 지난 7월 13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



김인결(국사71-7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지난 6월 27일 임기 3년의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에 선임.



황호선(철학71-80 부경대 명예교수) 지난 7월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에 임명.



김철수(무역74-78 전 관세청 차장) 지난 6월 28일 스포츠토토 수탁 사업자인 케이토대 대표이사에 선임.



오 준(불문74-78 전 유엔 대사) 지난 7월 1일 국제 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에 취임.



양승묵(신문74-79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난 7월 10일 디지털저널리즘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권영수(경영75-79 LG유플러스 부회장) 지난 7월 16일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에 선임.



노정혜(미생물75-79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난 7월 9일 임기 3년의 한국연구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



반석호(조선공학75-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제17대 소장에 취임.



송호근(사회75-79 모교 사회학과 석좌교수) 오는 9월 1일 포스텍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로 임용.



김용진(경제76-8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지난 7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이계성(정치77-81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분지 논설위원) 지난 7월 13일 국회 대변인에 임명.



박병완(기계공학78-82 아주대 연구교수) 지난 7월 17일 임기 4년의 아주자동차대학 제7대 총장에 취임.



유광수(대학원83졸 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6월 27일 임기 3년의 한국세라믹기술원 제4대 원장에 선임.



김재문(의학78-84 충남대 교수) 지난 7월 6일 대한뇌전증학회 초대 이사장에 선출.



김동현(의학80-87 한림의대 교수) 지난 7월 1일 임기 2년의 18대 한국역학회 회장에 선출.



이경무(제어계측80-84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지난 8월 1일 임기 1년의 한국컴퓨터비전학회 회장에 취임.



방문석(의학80-86 모교 재활의학과 교수) 지난 7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재활의학회 이사회에서 국제교류위원장에 선임.



강원택(지리81-85 모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7월 18일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이경렬(경제81-85 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7월 2일 서울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에 임명.



강현수(산업공학82-86 충남연구원장) 지난 7월 11일 임기 3년의 국토연구원 제16대 원장에 취임.



박수현(서양사83입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7월 13일 국회의원직 비서실장에 임명.



윤갑석(경영83-87 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지난 7월 1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에 취임.



조혜영(지리83-87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지난 7월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상무이사)에 선임.



이승준(의학83-89 강원대 교수) 지난 7월 25일 강원대 병원 제27대 병원장에 임명.



김연명(한대원85-87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지난 7월 10일 임기 3년의 항공안전기술원 제3대 원장에 취임.



김장성(농생물85-8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지난 7월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에 취임.



오영국(원자핵공학85-89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소장) 지난 7월 17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장치운영부장에 선임.



윤성덕(영문85-89 전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지난 7월 17일 주 모로코 대사에 임명.



이두봉(공법85-9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 임명.



김광표(화학86-90 경희대 교수) 최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 이사에 선임.



김현준(경영86-90 국세청 조사국장) 지난 7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



김대지(경영86-9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지난 7월 2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



김봉년(의학86-92 모교 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근 임기 4년의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부회장에 취임.



김 웅(정치88-93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지난 7월 13일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에 임명.



심재철(공법88-93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지난 7월 13일 법무부 대변인에 임명.



김남우(경제89-93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지난 7월 13일 전국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장에 임명.



이정수(사법89-9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7월 1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



한국식(행대원91-97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난 7월 27일 차관급인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에 임명.



임현승(AIP 46기 한국전력공사 UAE원전건설처장) 지난 7월 16일 한국전력공사 원전사업본부장에 선임.



유준상(ACAD 32기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지난 7월 17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에 취임.



권순경(ACAD 76기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9대 원장에 취임.



박형덕(ACAD 81기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지난 7월 16일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에 선임.



김동섭(APC 9기 한국전력공사 신성장기술본부장) 지난 7월 16일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 부사장에 선임.



한순영(HPM 25기 전 대전지방식약청장) 지난 7월 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3대 원장에 취임.



심승섭(AMPP 15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지난 7월 19일 해군참모총장에 취임.



주승용(ACPMP 2기 국회의원) 지난 7월 13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



김수홍(ACPMP 13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난 7월 27일 차관급인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에 임명.



왕태욱(GLP 24기 전 신한은행 부행장) 지난 7월 2일 신한금융그룹의 인력관리 협력회사인 신한서브 사장에 취임.



최대호(SPARC 21기 경기도 안양시장) 지난 7월 10일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제16대 회장에 선출.



하현희(AFP 5기 LG 부회장) 지난 7월 16일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에 선임.



신자용(AFP 1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지난 7월 13일 법무부 검찰과장에 임명.



김희천(ASP 32기 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 지난 7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 부사장에 선임.



장성순(화화48입 서양화가) 오는 9월 5일 제63회 대한민국예술원상(미술 부문) 수상.



손경식(법학57-61 CJ그룹 회장·분회 고문) 오는 9월 21일 한미경제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2018 벤 플리트상' 수상.



이경수(약학66-70 코스맥스 회장) 지난 6월 30일 일본 와세다에서 열린 아태국제경영학회(APAIB)·유엔 공동학회 개막식에서 글로벌경영대상 수상.



곽찬호(신대원69-71 일본섬연신문 주재기자) 7월 20일 섬연신문 창업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일본 동경 본사 사장으로부터 장기근속공로표창 및 감사장 받음.



김두섭(사회71-75 한양대 특임교수·아시아인구학회) 지난 7월 11일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수훈.



이상엽(화학공학82-86 KAIST 특훈교수) 지난 7월 18일 제11회 조지 워싱턴 카버상 산업생명공학 혁신상 수상.



하영춘(영문82-86 한경경제신문 편집국장) 지난 7월 25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4회 한국참언론인대상(산업정책 부문) 수상.



이성철(외교84-88 한국일보 편집국장) 지난 7월 25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4회 한국참언론인대상(경제금융 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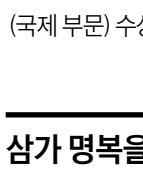
김상협(외교82-86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카이스트 지속발전센터장)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이 뜨거운 지구에서 우리의 살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탄소 시장 포럼 2018'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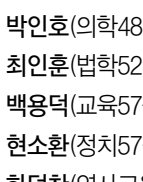
성대규(ALP 18기 보험개발원 원장) 지난 7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이슈테크'를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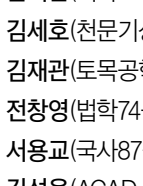
박인호(의학48-52 전 서울아산병원 정신과장) 6월 29일 별세(8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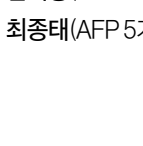
최인훈(법학52입 전 서울예대 교수) 7월 23일 별세(82세)



백용덕(교육57졸 전 인하대 교수) 7월 6일 별세(84세)



현소환(정치57-61 전 연합통신 사장) 7월 28일 별세(81세)



한덕찬(역사교육57-63 전 대구MBC 편성국장) 7월 11일 별세(79세)



김정욱(경제84-91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 지난 7월 25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4회 한국참언론인대상(경제혁신 부문) 수상.



이기수(인류85-91 경향신문 편집국장) 지난 7월 25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4회 한국참언론인대상(정치개혁 부문) 수상.



문주현(AIP 21기 엠디엠 회장) 지난 6월 30일 일본 와세다에서 열린 아태국제경영학회(APAIB)·유엔 공동학회 개막식에서 글로벌경영대상 수상.



정 철(ACPMP 10기 SK건설 전무) 지난 7월 7일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행사

정명수(미학64-71 한국식품포드체인협회 회장) 지난 7월 9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항 콜드체인 활성화 및 콜드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유현(의학67-73 가천대 석좌교수·뇌과학연구원장) 지난 7월 8-1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휴먼프린티어과학기구 한국대표 및 본부이사로서 21세기 국제프린티어과학발전을 위한 선진 각국의 역할과 국제 기구의 위상에 대한 회의와 토론 진행.

박명윤(보대원74-76 보건대학원동창회장) 지난 7월 20-22일 전남 화순군 소재 안양산리조트에서 한국파인트리클럽 주최 제57회 전국대학생 하계수련회 개최.

안지환(성악73-77 그랜드오페라 단장) 지난 7월 21일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키즈오페라 '올러라, 소리나무' 공연 개최.

이승덕(의학81-87 모교 법의학고교교수) 지난 7월 21일 서울 종로구 모교 연건캠퍼스에서 '강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강간차상죄 성립의 여부·인과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발표회 개최.

김상철(외교82-86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카이스트 지속발전센터장)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이 뜨거운 지구에서 우리의 살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탄소 시장 포럼 2018' 개최.

성대규(ALP 18기 보험개발원 원장) 지난 7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이슈테크'를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상가 명복을 빕니다

박인호(의학48-52 전 서울아산병원 정신과장) 6월 29일 별세(89세)
최인훈(법학52입 전 서울예대 교수) 7월 23일 별세(82세)
백용덕(교육57졸 전 인하대 교수) 7월 6일 별세(84세)
현소환(정치57-61 전 연합통신 사장) 7월 28일 별세(81세)
한덕찬(역사교육57-63 전 대구MBC 편성국장) 7월 11일 별세(79세)
김세호(천문기상65-72 서예가·전 천문학동문회장) 7월 19일 별세(73세)
김재관(토목공학73-77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7월 25일 별세(63세)
전창영(법학74-78 전 법무법인 화우 대표) 7월 6일 별세(62세)
서용교(국사87-93 전 국회의원) 7월 14일 별세(60세)
김석용(ACAD 40기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7월 6일 별세(79세)
최종태(AFP 5기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부회장) 7월 19일 별세(69세)

우리나라 첫 은행
since 1899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7년 아시아 최우수 은행' 선정

위비홈즈에서 우리집 찾았다!

아파트 단지정보에서 특화 금융 서비스까지 위비홈즈 하나로 OK!
우리은행이 만든 종합 부동산 플랫폼 위비홈즈

 **우리은행** WOORI BANK

|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시집 「북한산바위」 출간

시인 정 의 홍

보고인터내셔널

회장 김 동 만

하이에어코리아

회장 김 근 배

특허법인 동원

대표이사 정 태 련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KYOBO 교보생명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황제펭귄의 허들링 이야기를 아시나요?
매서운 남극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안쪽 펭귄과 바깥쪽 펭귄들이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a white horizon line. At the bottom, a group of penguins is depicted: a large huddle of Emperor penguins on the left, and a single Adelie penguin on the right. Above the penguins, numerous small black dots are scattered across the sky, representing snow or ice particles. The text is arranged in a clean, sans-serif font, with the main title in a larger size. The KYOBO logo is in the top right corner, and a small tagline is in the top left corner.

서울대 총동창신문

교문		
△강신호	10만원	△김찬숙 10만원
△민경갑	10만원	△신영균 10만원
△윤세영	10만원	△이금기 10만원
△이길여	10만원	△이수빈 10만원
△이준호	10만원	△임창무 10만원
△정해창	10만원	△조필재 10만원
△홍성대	10만원	

명예회상	
△서정화	30만원

평생회상		
△김기병	30만원	△민명술 30만원
△박영주	30만원	△손길술 30만원
△우인성	30만원	△정팔도 30만원
△조병우	30만원	

회장단		
△부회장 강대원 100만원	△부회장 권오근 100만원	
△부회장 권오규 100만원	△부회장 김경환 100만원	
△부회장 김명자 100만원	△부회장 김성배 100만원	
△부회장 김영무 100만원	△부회장 류 진 100만원	
△부회장 민경철 100만원	△부회장 박수정 100만원	
△부회장 상기환 100만원	△부회장 송승순 100만원	
△부회장 신창재 100만원	△부회장 유상부 100만원	
△부회장 윤호미 100만원	△부회장 이승훈 100만원	
△부회장 이운경 100만원	△부회장 이종기 100만원	
△부회장 이지호 100만원	△부회장 이혜진 100만원	
△부회장 장중환 100만원	△부회장 지창훈 100만원	
△부회장 최종식 100만원		

자문위원		
△강신주	100만원	△고광우 100만원
△김병환	100만원	△변상현 100만원
△장병덕	100만원	△황해근 100만원

단과대학 및 특별과정 동화회장		
△최영철 문리대 20만원	△조대연 법대 20만원	
△이혜숙 생활대 20만원	△최규팔 약대 20만원	
△홍정호 의대 20만원	△정인섭 대학원 20만원	
△박영은 보대원 20만원	△김성철 AP전통문화과 20만원	
△류희진 HPM 20만원	△김병관 AFB 20만원	
△박태원 ACPM 20만원	△박도봉 BCP 20만원	
△이덕원 ABKI 20만원		

논설위원		
△김광덕	10만원	△김영희 10만원
△김창근	10만원	△임규규 10만원
△전경하	10만원	

관악회	
△이사 김병순	30만원

평생회비 - 이사		
△강서정 생활대	02	△강석기 자연대 71
△강지림 법대	87	△고동희 농대 66
△고성민 사회대	80	△공인표 사대 76
△구은석 법대	98	△권민관 경영대 96
△권영하 ACPMP	12	△권 혁 공대 86
△김경일 보대원	13	△김관우 농생대 83

△김 광 자연대	96	△김광규 문리대 60
△김기대 농대	68	△김동진 공대 68
△김명석 의대	62	△김미숙 사대 71
△김병석 의대	97	△김선태 사회대 82
△김성환 공대	84	△김성환 사대 4
△김연근 법대	85	△김영철 농대 73
△김옥연 약대	86	△김원식 공대 80총
△김윤기 법대	78	△김정주 공대 89
△김재섭 자연대	81	△김재식 ACPMP 5
△김정규 AIP	56	△김정희 사대 84
△김종택 의대	85	△김종국 자연대 91

△김종순 치대원	07	△김종철 치대 71
△김준봉 행대원	79	△김준환 AIP 57
△김진태 법대	71	△김철우 공대 87
△김형성 미대	96	△김형택 인문대 78
△김혜성 법대	96	△김해주 약대 80
△류동균 법대	97	△민소원 경영대 02
△박동일 GLP	24	△박성일 행대원 86총
△박오국 공대	72	△박은호 경영대 82
△박종화 농대	82	△박휘성 문리대 71
△변경태 FNP	8	△배상수 공대 89
△배종서 공대	82	△박영국 수리대 81

△서광성 농대	79	△서성원 농생대 83
△서의호 공대	71	△성해경 경영대 93
△손준홍 의대	85	△송우진 농생대 81
△송윤구 GLP	35	△송하진 행대원 81총
△신국호 AIP	37	△신성우 AIP 55
△신양주 ACAD	72	△신영하 GLP 30
△신지섭 ACPMP	10	△안현기 GLP 30
△양우진 HPM	15	△양정성 ABKI 1
△양철우 인문대	83	△염병만 AMP 71
△예태근 공대	90	△오규석 사회대 82

△오문준 경전원	14	△오현득 GLP 13
△원근식 AIP	43	△유식용 ACPMP 11
△유은실 의대	78	△유지영 자연대 81
△윤근성 사대	72	△윤세환 공대 79
△윤여균 법대	82	△윤지은 읍대 96
△이근철 AMP	50	△이덕수 공대 83
△이동서 의대	83	△이명호 자연대 81
△이미숙 가정대 74총	80	△이복선 사대 71
△이상이 농대	83	△이성로 AIP 57
△이서은 GLP	6	△이성로 공대 81

△이수주 의대	87	△이순학 상대 64
△이재덕 사회대	73	△이정일 사회대 82
△이정준 AIP	50	△이재훈 공대 03
△이종석 AMP	81	△이종용 농대 62
△이준고 농대	87	△이진호 농생대 90

△이창술 AIP	44	△이창재 법대 83
△이창호 사대	71	△이혁림 농대 81
△이호종 사회대	85	△임내현 법대 71
△임정수 농대	78	△정인중 법대 82
△정경진 사대	04	△정기철 경영대 97
△정목재 경영대	91	△정원식 경영대 05
△정원철 AMP	66	△정종재 사회대 82
△정준호 문리대	57	△정찬일 공대 88
△정현숙 AMP	77	△지희권 농생대 89
△차순관 경영대	72	△창병모 공대 84

△현병년 약대	77	△현은영 경영대 07
△천인국 자연대	96	△최도원 공대 83
△최석표 약대	71	△최수아 보대원 01
△최영환 사회대	84	△최용환 공대 87
△최은상 AMP	58	△최재환 의대 96
△최정철 공대	86	△최호순 사회대 92
△최홍규 ABKI	5	△최홍섭 사회대 87
△최홍규 GLP	32	△최석진 법대 88
△최동진 공대	01	△최병설 ACPMP 13
△홍보기 공대	89	△황세준 AIP 54
△황정수 법대	86	

평생회비 - 일반		
△강윤규 경전원	16	△구상삼 AFB 4
△권태식 농대	73	△김경애 약대 99
△김광석 ACAD	84	△김동영 AIP 10
△김민구 ACPMP	14	△김승영 공대 68총
△김용순 ACAD	84	△김규나 미대 07
△김윤희 법대	02	△김정수 약대 58
△김정용 법대	04	△김중환 공대 61
△김진근 공대	68	△김태성 문리대 61
△김한성 의대	12	△김현정 수리대 11
△김혜진 사회대	03	△김홍국 미대 83

△김희기 GLP	35	△남궁우 대학원 98
△류진규 농생대	85	△윤영균 경영대 02
△박광훈 AIP	58	△박식순 농대 77
△박영하 상대	65	△박인애 자연대 07
△배원근 공대	50	△석영일 APC 15
△손우영 법대	94	△송효주 AMP 84
△신성희 AMP	84	△김정순 약대 54
△심재석 상대	57	△심정아 사대 92
△심준석 상대	59	△안재원 공대 92
△안중환 공대	73	△홍성식 법대 06

△안용규 공대	77	△이강남 AMP 44
△이권희 의대	88	△이덕선 자연대 93
△이상진 경영대	82	△이성민 사회대 02
△이종철 법대	07	△이창진 의대 71
△이행자 보대원	69	△정태완 상대 85
△정의연 상대	61	△조상수 읍대 06
△조성희 GLP	34	△최명관 HPM 31
△최원재 상대	08	△최태혁 자연대 10
△최희순 농생대	08	△최호용 공대 71
△황백현 ABKI	7	△황해선 AMP 67
△황희영 공대	69	

연회비 - 이사		
◆인문대	△강동현 83	△강병국 78
△강현주 93	△강해정 82	△김태현 75
△박태연 74	△백기훈 82	△서노원 81
△오세종 79	△윤옥순 76	△윤재근 80
△이용두 74	△정우철 83	△조용일 77
△조용호 87	△조태희 83	△허 탁 83
◆사회대	△김남훈 79	△권오민 87
△기희도 83	△김기영 75	△김동을 92
△김성환 72	△김영국 86	△김조만 78
△김종택 83	△김준복 86	△나윤호 85
△문경석 88	△박복영 85	△박성희 75

△박윤철 89	△송재민 86	△신두영 78
△오석동 82	△오탁근 89	△이경삼 86
△이목희 71	△이상두 82	△이승근 84
△이왕익 82	△이원백 84	△이준우 92
△이철순 80	△이철영 82	△임영택 80
△임희택 78	△정봉영 89	△장인성 81
△정봉고 72	△정성호 81	△조성준 83
△채민선 85	△최영선 77	△최재혁 89
△최홍섭 82		

◆자연대	△김용태 83	△배원재 91
△신상진 79	△이명호 81	△이성두 03
△이철의 75	△이태림 77	△채신규 81
△하태연 86		
◆간호대	△권인각 77	△채희주 97
◆경영대	△김강연 92	△김두만 81
△김석호 77	△차시빈 90	△김주연 03
△나현주 01	△노진만 83	△신동원 73
△안병현 79	△안종범 83	△장기봉 75
△오정규 77	△이동진 89	△이성재 90

△이영현 80	△정승일 84	△진형노 87
△최성원 88	△한갑희 78	△한승훈 85
△허두석 93	△하석년 83	
◆공대	△강희창 83	△김경석 77
△김광국 56	△김규찬 82	△김노수 45
△김민안 83	△김성도 75	△김성민 91
△김성은 91	△김성태 86	△김성환 66
△김영수 58	△김영호 76	△김용주 83
△김인동 80	△김종관 82	△김종술 66

△김종현 91	△김중수 87	△김한철 74
△김희석 95	△박종구 58	△박동선 85
△박용영 84	△박원규 73	△박현철 85
△백진수 83	△전희복 77	△윤국원 81
△윤수호 85	△이동원 81	△이동희 85
△이명규 93	△이병진 93	△이성범 83
△이성원 58총	△이세형 81	△이수남 69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후 총동창회 감사의 내부 감사와 총회 승인을 받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0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한게 사용하겠습니다.

회장단·자문위원·논설위원·상임이사·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18. 6. 24~7.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미학원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화단·자문위원·논설위원·상임이사·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18. 6. 24~7.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하시면

회비 납부 방법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경조 서비스 이용
익년도 포켓수첩 (또는 탁상달력) 증정	건강검진 우대

구 분	입 회 비	연 회 비	평 생 회 비
일반회원	10,000원	30,000원	300,000원 (65세 이상은 200,000원)
이사회원	-	100,000원	700,000원 (65세 이상은 500,000원)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 로 : 지로용자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서울대학교총동창회

☎☎☎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이재갑 85	△이재희 09	△이종국 97
△이창기 66	△이태민 85	△임석철 76
△임재원 81	△장명섭 83	△전영기 76총
△전의찬 78	△정건목 91	△정동호 79
△정승하 73	△조한철 87	△채 철 61
△최도철 87	△최승철 81	△최재영 84
△합석진 96	△홍상만 62	△황정수 71
△황금영 82		
◆농대	△권근중 80	△김기대 68
△김재희 79	△김재식 78	△김현태 84
△남정우 74	△박득규 56	△박홍진 67
△박주은 75	△박사근 79	△연영섭 84
△이기동 54	△이동훈 78	△이성진 69
△최도철 82	△이원익 80	△이종민 71
△이창희 78	△정동원 81	△정제진 70
△정태근 82	△조진식 67	△조수정 72
△조재구 83	△최명관 74	△최지영 84
△한갑준 52	△한석록 81	△한재용 80
△황주연 57	△관학철 88	△김석현 89
△황백현 82	△박종민 87	△양기웅 93
△이봉훈 82	△장석원 84	△조선철 84
△조명재 82	△차홍선 87	△한용규 99
△허 범 96		

◆문리대	△기우택 57	△김대섭 61
△김동성 57	△김상진 71	△김근진 69
△박영배 65	△배상근 56	△이성덕 56
△정연하 61	△조창래 66	△표완수 67
△한복무 66	△한영우 57	△한태길 69
◆사회대	△김남훈 79	△권오민 87
◆미대	△김영화 81	△정정자 60

△정종해 67		
△허 태 96		
◆법대	△강수진 89	△강찬주 81
△박병훈 87	△곽중훈 71	△권오연 56
△김각연 84	△김규복 69	△김기진 59
△김남근 82	△김철운 77	△김석재 88
△김선주 63	△김승진 57	△김종운 72
△김진태 71	△최호용 72	△김종민 72
△남병호 85	△노동보 80	△도정환 83

△박경보 74총	△박광우 87	△박용석 74
△박재윤 93	△박정식 81	△박철민 61
△변광호 84	△사장석 77	△신근식 63
△심우정 90	△안영도 65	△오세배 55
△오현석 76	△박우진 71	△이계진 81
△이용근 88	△이윤호 86	△이은중 77
△이인상 60	△이재방 78	△임성근 82
△임종홍 73	△정재기 58	△정경진 83

△정재오 89	△정준영 85	△정해은 57총
△조남국 53	△주석영 79	△차문호 88
△최석문 86	△최우식 75	
◆사대	△강영성 59	△고우승 59
△공수영 70	△김상근 80	△김수영 81
△김충연 58	△홍희섭 73	△송상성 69
△유한국 78	△이계현 72	△이서복 79
△이호준 60	△장상근 97	△정규성 58
△정하경 76	△최낙준 61	△한진희 59

◆상대	△권영식 66	△김기휘 66
△김덕기 52	△김만경 53	△김상규 57
△김재오 70	△김하두 64	△박병준 51
△서병민 61	△선종중 71	△손재환 69
△유경재 55	△이대우 72	△이용성 56
△이종연 52	△최현섭 57	△정윤문 65
△정종택 57	△조재열 70	△탁익일 56
◆수의대	△구자민 89	△김남훈 87
△김용광 75	△김윤수 74	△오세철 86
△유아선 91	△이동원 76	△이영무 67
△김윤규 75	△임정수 64	△장동민 81
△정동혁 79	△최준주 00	△하태은 80
△황규택 88		

◆약대	△김경일 00	△김광순 59
△김규호 64	△김상훈 73	△김영택 58
△김오래 79	△안병국 68	△이성구 73
△이성완 63	△이진근 69	△조용현 74
△지현석 56	△최창하 90	△함은경 82
◆음대	△최해중 69	△민미란 73



2018 The Mungyeong OMIJA

문경오미자 축제

2018.9.14~9.16 (3일간)
문경시 동로면 일원

2018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문경사과축제

2018.10.13~10.28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 구입처 : 문경시농특산물 공식쇼핑몰
새재장터 (www.saejaemall.com)
Tel. 054-571-9600



문경약돌한우



문경약돌돼지



문경표고버섯



서울대의 자부심!
신약 개발로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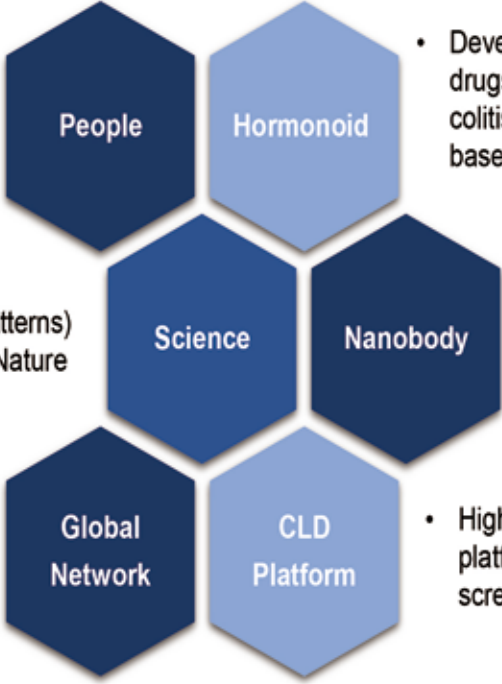
Recruitment

Empower Immune System With
NanoMAB® and Anti-Inflammatory Hormonoid

모집 부문

- ▶ 신약 유효성 평가
 - 염증/종양 분야 유효성 평가,
 - In vitro 유효성 평가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학 제반 기술),
 - In vivo 동물모델 개발 및 유효성 평가
- ▶ 항암 항체 의약품 개발
 - 동물세포주 배양 및 고발현 동물세포주 제작
 - 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of antibody
 - Cell line development
- ▶ Business Development
 - 제제, 학술, 임상, 국내외 허가, Global licensing
 - 회계, 관리 일반

- Founded by Dr. Seong, professor at SNU Collage of Medicine, to put theory into practice
- Over DAMPs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to control inflammation (Nature Rev. Immunology 2004)
-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 and research institution to expedite development & L/O
- Developing anti-inflammatory new drugs for atopic dermatitis, ulcerative colitis, Alzheimer's ds, sepsis, etc., based on DAMPs model
- Developing anti-cancer bio therapeutics with NanoMAB® /NanoToxin®, next generation mAb technology
- High-throughput cell line development platform technology for rapid efficacy screening



syj@shaperon.com
Tel. 02-6083-8315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LOUIS CASTEL
P A R I S

(주)VL&CO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 (02)548-6872 | www.louiscastel.com

명사칼럼

한국에 국제 학술교류센터 짓자



정상욱
수학75-82
미국 쉐퍼드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최근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긴장 관계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의 추격으로부터 단 한번도 패권국의 지위를 놓지 않았던 미국도 이번에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많은 인구수와 풍부한 자원, 철저한 중앙통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국이 과학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우위로 유리함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과학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2008년부터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필두로 하는 이공계 지원 계획이다. 이미 중국에서도 규모만 커지는 경제의 한계를 깨닫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 규모를 연평균 10% 이상씩 늘리면서 유럽을 제치고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국 이공계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인재다. 자국 출신 해외 인재뿐 아니라 우수한 외국의 젊은 학자들 또한 대거 불러 모으고 있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아 자국의 첨단 기술 자양분으로 삼으며 일으킨 현상을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같은 현상이 중국을 향해서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후 줄어든 과학 기술 자금과 까다로워진 이민 절차 등과 맞물려 미국 내에서도 두뇌유출의 우려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는 두뇌유출에 관한 기사를 통해 예일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중국 칭화대에 새 연구소를 꾸린 스페인 출신의 유전학자가 소개됐는데, 필자도 최근에 만났던 상해뉴욕대학의 문필경 박사와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상해고압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김덕용 박사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젊은 한인 학자들을 보며 과학계에서도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계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두뇌유출의 양상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나가서 수학했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을 지칭했다. 2013년 미국과 학제단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60%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조사됐다고 한다. 스위스 경영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두뇌유출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98점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연구환경과 경제 규모에서 오는 이점이 타지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비교를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다는 것이 새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중국은 한국의 옆에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긴 비행시간과 시차 및 문화적인 차이점까지 극복해야 하는 서양국가로의 인재유출에서도 한국은 고전해왔는데 앞으로 쉽게 오갈 수 있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인재들이나 항공기 조종사 등의 이직 현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도 인접 국가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으로의 과학계 두뇌유출이 앞으로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변화를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처에 달려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읽어 냈다면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는 무엇일까. 인재 블랙홀이 될 중국으로 수많은 유수의 학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재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중국으로 모여든 인재들의 활용방법을 찾아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잠재적 인재 블랙홀인 중국 과학계와 여전히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는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의 새

로운 역할이란 무엇인가. 바로 숙명과도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과학계 허브의 역할이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일 수 있다. 마치 얼마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가 중계자로서 역사적인 회담의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인의 방문으로 인한 특수와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누렸던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의 위치가 학술대회를 유치하기에 점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미 오랜 과학의 역사를 가진 유럽이나 미국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학술교류센터들을 갖추어 학자들을 모으고 있다. 독일 알프스의 성을 개조한 ‘성 림베르크’라든가, 이탈리아의 자국 물리학자 이름을 딴 ‘에토레 마요라나 센터’,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아스펜 센터’ 등은 이미 학자들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교류센터의 중요성은 단순한 방문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는 학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려지는 과학 발전의 자양분에 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의 과학계는 그 규모의 한계로 인해 국제적인 학술대회 대부분을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참가해 왔고,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 학계의 적절한 네트워크와 주류로의 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돼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중·일 만으로도 규모를 갖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학자들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허브로서 나름의 역사를 쌓아나아가려면 수려한 경관만이 아니라 장소 자체의 의미와 이야기를 가진 곳이라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할 것인데 창의적인 시선으로 한반도를 재발견해야 하는 시점이다.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이 있는 제주도나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로 각인된 평창이나 심지어는 포 발사장이 해안 관광지로 변하고 있는 북한의 원산갈마 해안 같은 곳에 국제 학술교류센터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경제와 정치의 중계자 역할을 하듯이 한국이 학술교류센터를 통하여 가장 적은 투자로 동방의 과학 허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느티나무 칼럼

‘20년 집권론’과 나무 백일홍



임석규
연어84-91
한겨레 디지털미디어국장
본지 논설위원

별나게 뜨겁던 여름이 간다. 이 여름을 너끈히 견뎌내고도 붉은 기운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꽃이 있으니, 가을 초입에 이르도록 푸짐한 꽃을 피워내는 나무 백일홍이다. 유서 깊은 서원에 가면 어김없이 이 나무를 찾을 수 있다. 그 꽃말이 ‘떠나간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니, 선비들이 가까이했던 것도 그 때문일 거라고 마음대로 상상해 본다. 백일 동안이나 간다고 백일홍이라지만 백일 내내 꽃꽂히고 여윌하게 꽃을 피워내는 건 아니다. 무수한 꽃이 피었다 지고, 지었다 피기를 되풀이한다. 그렇게 땀방울을 참아내고, 비바람을 버티다 보니 백일 동안 질기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이성복, ‘그 여름의 끝’ 부분)’

백일 동안 붉은 꽃들을 피운다는 건 어쩌면 ‘백일 동안의 고통’과 맞닿아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흔히 권력을 꽃에 비유하곤 한다. 속성은 판관이지만 세상을 홀리는 강렬함이 담았고, 절절인가 싶더니 어느새 훌쩍 소멸해버리는 덧없는 퇴장의 순간도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널리 회자되는 어구가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다. 열흘 붉은 꽃 없고 10년 넘기는 권력 드물다는 의미다. 이를 ‘정권을 잡으면 일단 10년은 간다’는 뜻이라고 살짝 비틀어 해석한 정치인도 있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30년 동안 10년씩 번갈아 집권했으니 아주 더 무늬없는 해석은 아니란 생각도 든다.

여권에서 이번엔 10년을 넘어 아예 20년 동안 집권해야 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흘러나온다. 네 차례는 연속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운다. 쿠데타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펴서 계속 국민 지지를 얻었다면 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44년 동안 장기집권하며 모범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스웨덴 사민당 사례도 있다. 다만, 여권의 ‘20년 집권론’이 그만큼의 결연한 각오와 출중한 실력, 굳건한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오만하게 비치기 십상이요,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조석으로 바뀌는 게 민심 아닌가.

‘수없는 꽃이 지면서 다시 피고/떨어지면 또 새 꽃봉오릴 피워 올려/목백일홍 나무는 환한 것이다/꽃은 저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제 안에 소리없이 꽃잎 시들어가길 알면서/온몸 다해 다시 꽃을 피워 내며/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이다(도종환, ‘목백일홍’ 부분)’

나무 백일홍이 백일 동안 꽃을 피우는 비결로 시인은 ‘거듭나고 거듭남’을 꼽는다.

힘들여 피운 꽃도 지는 건 잠깐이고, 애써 잡은 권력도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꽃이 시들면 초라해지듯, 국민 지지를 잃어버린 옛 권력의 뒷모습도 한없이 누추하다. 요즘 우리가 생생히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다. 폭염과 폭풍을 묵묵히 견디며 부단하게 거듭나는 나무 백일홍의 정진을 배우지 않는다면 ‘20년 집권론’은 한갓 한여름 헛된 꿈이 되고 말 것이다.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Medical Corporation Wonkwang Medical Foundation

**‘원광효도요양병원’의 브랜드와 선진화된 모델을
선보이며,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원광효도요양병원

내과 / 재활의학과 / 통증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가정의학과 / 한방과
재활센터 / 신장투석 / 치매센터 / 양·한방협진

원불교 중앙총부 뒤
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
상담:063)850-9900

구 청주관광호텔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상담:043)267-0156

군산시청 서문 옆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상담:063)450-0700

미래를 대표할 건축,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의

국가대표 품질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층 부르즈 칼리파에도,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에도
30년 이상의 역사, 익스펜션 조인트의 명품
조인트유창이 함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특허 大賞



현대건설
기술대전 수상



특허기술상
홍대용상 특허등록
제10-1386663호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